



[뉴스] 파생상품 광동 속출 속 국민은행 고객은 수익 챙겼다

02



Economy

| | | | |
|------------|------------------|-----------|-----------------------|
| 코스피 | 1960.25 (+20.35) | 코스닥 | 607.01 (+12.36) |
| 금리 (미국 3년) | 1.10 (+0.01) | 환율 (원/달러) | 1208.30 (-2.70) (20일) |

상장사 9년새 영업익 40% 늘어도, 시총은 15% 증가 그쳐

저평가 높에 빠진 전통제조업... 플랫폼경제 전환 시급

metro-NICE 평가정보 공동기획 데이터로 엿보는 세상

(1)시총 상위사 실적 분석

‘시총 1위’ 삼성전자 1분기 순익 지난해 동기대비 63%나 줄어 SK 하이닉스도 전년비 1/3수준

현대차·SK·LG·롯데지주 등은 영업익·순익 20% 이상 증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100위 기업 가운데 38%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올 1분기에 20% 이상 감소한 상장사가 35%에 달했다. 기업이익 예상치가 지속적으로 줄어 들어 한국 증시에 대한 상승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한국의 주식시장은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부진한 모습을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프로젝트에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수요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양질의 데이터 접근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 등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메트로신문이 데이터 공급기업인 나이스평가정보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양사는 이번 협업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할 “데이터 저널리즘”을 모색키로 했습니다.

(편집자주)

보이고 있다. 주가는 실적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된 상태다. 기업들은 투자보다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신문이 20일 나이스평가정보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시장 시가총액 100위 기업 가운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이 35곳에 달했다. 순이익이 20% 이상 줄어든 상장사도 38곳이었다.

◆영업익·순익 20% 이상 감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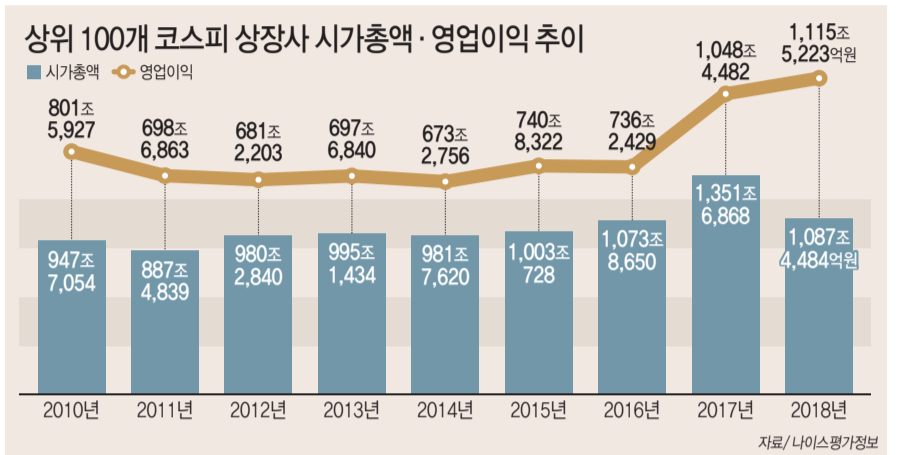
시총 100위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과 순익 모두 지난해 1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주요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로직스, 삼성물산, 한국전력공사, LG전자 등이었다.

실제로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 1분기 순익이 3조88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순익(8조4524억원) 대비 63.4%나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3조8969억원으로 작년 1분기(11조2008억원) 대비 65.2%나 급감했다.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의 경우 올 1분기 순익 944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3조1946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영업이익도 1조2169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3650억원)의 27%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 확산으로 하반기 실적도 먹구름이 예상된다.

◆영업익·순익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기업

반면 올 1분기 실적에서 반전 드라마를 쓴 기업도 있다.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순익 모두 20% 이상 증가한 상장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SK, LG, 롯데지주, 현대글로벌비스, 호텔신라, GS리테일 등이었다.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은 2352억원으로 작년 1분기(1853억원)보다 26.9% 증가했다. SK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1194억원으로 전년 동기(8031억원) 대비 39.3% 급증했다.

호텔신라의 1분기 영업이익은 720억원으로 전년 동기(455억원) 대비 58.2% 급증했다. 순익도 올 1분기에 18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34억원) 대비 38.8% 증가했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이 끝난 뒤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 첫번째)의 설명을 들으며 탄소섬유 활용 제품 등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전북 효성·하림 공장 방문

‘탄소섬유’ 국가 전략산업 집중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전북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전북 내 ▲효성 첨단소재 전주탄소섬유공장과 ▲하림 익산 본사 및 식품공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번 행보는 문 대통령이 ‘일본발 경제보복 전선의 활로’이자 경제강국을 향한 ‘우리경제 생태계 변화’ 일환으로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라는 기여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쯤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 효성-전라북도-전주시 투자협약체결을 격려했다. 효성은 수소차 보급 확대 등 국내의 탄소섬유 수요증가에 따라, 탄소섬유 생산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2.

4만톤(현 2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효성은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10개 라인(현 1개)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전북-전주는 증설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탄소섬유는 자동차 내외장재·건축보강재·우주항공 등 첨단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신소재다. 더욱이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가 적고 강도가 높아 ‘미래산업의 쌀’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효성-전북-전주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싼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진다”며 “핵심소재의 국산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 후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탄소섬유 등 100여개 핵심품목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집중지원할 것”이라며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3면에 계속)

/우승준 기자 dn1114@

“외환시장 각별한 경계감 쏠림 발생 땀 선제 조치”

김용범 기재부 차관
글로벌 금융시장 예의주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외환시장에서 급격한 수급 쏠림 등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미중 무역분쟁의 재부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나라 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최근 외환시장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며 “시장 불안 우려가 생기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국제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침체를 예상하는 신호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며 “(이번 역전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바로 해소됐다”고 답했다. 이어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은 적도 많았다”며 “현재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겠지만, 침체라고 할수록 자기실현적 위기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 시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최근의 고용률 개선이 단기 일자리 확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적에 대해서는 “인구구조상 고령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며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파생결합상품 강통속출 속 수익채권 투자자

금리 내릴수록 수익은 ↑... 국민은행 투자전략 통했다

국민은행 가입고객 수익 3.5~4%
우리銀 등 예상손실률 95% 달해
유안타증권·미래에셋대우도 '수익'

같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이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금리가 오르거나 적어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던 상품들은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지만 금리 하락에 베팅한 상품의 경우 수익은 물론 조기상환의 기회가 찾아왔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에 따르면 관련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의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이 40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3876억원 ▲국민은행 262억원 ▲유안타증권 50억원 ▲미래에셋대우증권 13억원 ▲NH증권 11억원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아직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을 감안하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을 판 금융사마다 속사정은 달랐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금리가 기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현재 금리가 만기(올해 9~11월)까지 유지된다면 예상 평균 손실률은 95.1%에 달한다.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95만1000원을 날리는 셈이다.

반면 국민은행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손실이 아닌 당초 예상한 수익(연 3.5~4%)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에서 판매한 금리연동형 DLS상품은 미국국채이자율스와프(CMS) 10년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구성한 하이브리드형 상품이었다. 설정시보다 기초자산의 금리가 하락할수록 고객에게 유

리하도록 설계해 금리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헷지(위험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만기도 3년이고, 설정 후 6개월 이후에는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해 상환확률을 크게 높였다. 국민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모두 기초자산의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수익구간에 도달했고,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지난 6, 7월 두 달간 약 262억원을 판매했지만 최근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금리변동성 리스크가 커지면서 8월 이후로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판매규모는 크지 않지만 유안타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상품 역시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설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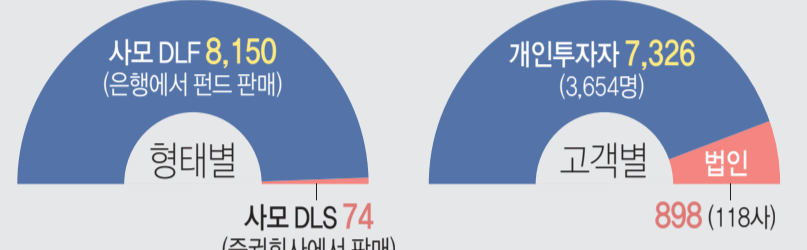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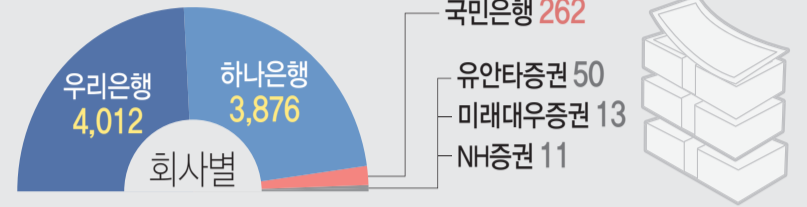
지난 7월에 발매한 미래에셋대우 사모 DLS 상품도 미국 CMS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금리가 165%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 현황

국내 금융회사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8월 7일 기준, 단위: 억 원

판매 잔액 총 8,224억원



| 예상손실률 | 영국·미국 CMS 금리 |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
|-------|-----------------|-----------------|
| | 6,958억원 (56.2%) | 1,266억원 (95.1%) |

자료/금융감독원

연립뉴스



내일은 '에너지의 날' 제 16회 에너지의 날을 이틀 앞둔 20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에너지가 들어주는 다섯가지 소원'에서 에너지시민연대 회원들이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은행 부실채권 17.5조... 0.07%p ↓

금감원, 2분기 부실채권 비율 0.91%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하락세를 이어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91%로 전분기 말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0.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원 줄었다. 기업여신이 15조5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계여신과 신용카드 채권이 각각 1조8000억원, 2000억원 규모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5%로 전분기 말 대비 4.2%포인트 상승했다.

2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4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3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늘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8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실채

권 정리규모는 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상·매각이 2조4000억원 규모로 이뤄졌으며,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와 여신통합화가 각각 1조원, 1조4000억원 규모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32%로 전분기 말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여신과 중소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1.95%, 0.97%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0.16%포인트, 0.08%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5%로 전분기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은 1.38%로 전분기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비율은 하락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상승했다"며 "향후 신규부실 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일본계 은행 국내여신 63%가 대기업 대출

(13.1조원)

금감원, 6월말 총 여신액 23.4조
미즈호은행, 10.9조, 46.8% 차지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의 여신 대부분이 대기업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의 여신은 총 23조4000억원이다. 이는 5월 말 수치인 24조7000억원에 비해 약 1조3000억원(5.4%) 줄어든 규모다.

은행별로 보면 미즈호은행이 10조9000억원(46.8%)을 국내 기업과 기관 등에 빌려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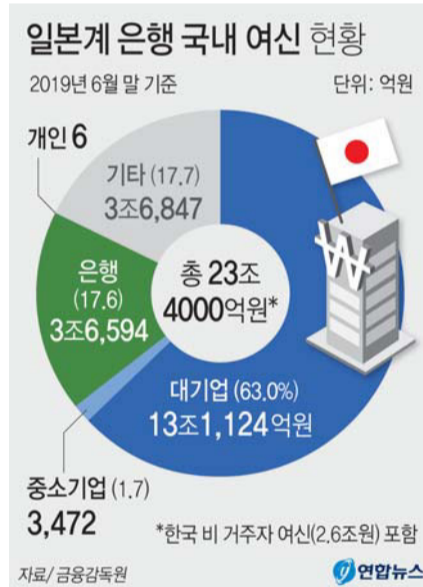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J)의 한국 내 여신은 7조7000억원,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4조7000억원, 야마구찌은행은 1000억원이다.

국세수입 294조... 11% 쯤 '세수호황'

지난해 세금수입이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수납액 비중이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서 유례 없는 '세수호황'은 법인 실적 개선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특히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은 3.0%로 세수탄성치는 3.54를 기록했다.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다.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



일본계 은행 여신 가운데 대출자 주소가 한국이 아닌 이들이 빌린 2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자금을 빌린 주체는 대부분 기업이었다. 기업여신이 전체 여신의 64.7%인 13조5000억원(7587건)을 차지했다.

*한국 비 거주자 여신(2.6조원) 포함

자료/금융감독원

연립뉴스

은행의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이 빌린 자금은 17.7%(3조7000억원), 은행 여신은 17.6%(3조7000억원)였다. 가계에 빌려준 금액은 총 6억원으로 미미했다.

기업여신을 기업 규모별로 나눠보면 대기업이 빌린 금액이 13조1000억원으로 거의 전부였다. 일본계 은행의 전체 국내 여신 중 대기업이 빌린 자금이 63.0%를 차지했다. 은행 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여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 외 금융회사에 내준 여신이 2조7000억원(97건), 공공기관 여신이 1조원(648건) 있었다.

공공기관 여신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수출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맡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채권이였다. 37건은 공공기관이 일본계 은행에서 받은 일반대출이었다. /연합뉴스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검토 보고서
법인실적 개선·부동산 호조 등 원인

세 등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수의 비중이 늘어나고, 과세 기반의 집중도가 심화한다고 내다봤다. 또 조세제도 누진성 확대 등에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1980~1990년대 국세 수입 증가는 대체로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 경상성장률에 대한 국세 수입 증가율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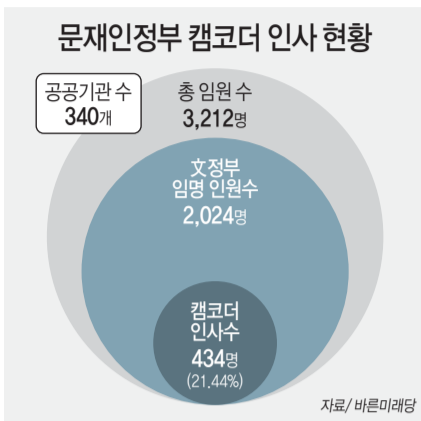
기재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세수입 변동폭 확대 상황에서 거시경제 지표에 기반한 현행 세수추계모형만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행 모형한계를 보완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를 지적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국회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임원 선임 문제제기

해외 공관장 절반 '캠코더'... 공기관장 선임 정치 논리로

〈대선캠프·코드인사·더민주 출신〉

현행 선임제, 실제 운영과 괴리 커
효율적 경영·공정 성과평가 어려워
선정부서 임명까지 전반적 개선 필요



‘코드인사(측근내정)’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선임 기준을 기관별로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국회도 공공기관 코드인사 근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339개 공공기관의 전체 임원은 4000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임원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선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물색·심사해 적합 후보자 3~5배수를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임명하

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현행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는 실제 운영과 괴리가 크다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효율적 경영과 공정한 성과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 자원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에 대한 관련 규정이 포괄적이라 임원 추천 기준의 구체성·명확성도 부족하다는 고언도 나

온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일본 경제보복에 직면함에 따라 지난달 조사·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해외 공관장 낙하산 현황’에 따르면 해외 특임 공관장 30명 중 15명이 외교 경험·전문성이 없는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다.

부동산 분야에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 민간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위원회 결정 사유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내놨다. 주정심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조직이지만,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해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는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이 공정성·전문성 등을 저하한다고 평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재

환재경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분석을 통해 “(추천위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선 운영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추천위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 결정권이 강하고, 민간위원 선정도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조사관은 또 “추천위에 인사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공공인사선임 원칙을 기준으로 임원을 엄선하고 있다.

영국은 매년 공공부문을 분류·규정하고 ‘간접 임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원 선임과정의 법령·규정을 마련해 다양한 기관의 견제와 동의를 얻도록 한다. 특히 공공기관 인사감독 기관

인 공공인사감독관실(OPCA)를 두고 임원 인사를 규제한다. 또 ▲주무부처 책임 ▲이타성 ▲신뢰성 ▲후보자 가치 ▲개방성 ▲다양성 ▲확실성 ▲공정성 등 8대 원칙을 두고 임원선임과정에서의 민원 접수와 조사, 감사 등을 실시한다.

입법처는 한국 공공기관의 임원선임제도 개선을 위해 ▲임원 선임기준 명확화 ▲추천위 독립성·전문성 강화 ▲임원 선임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임원 임기제도에 대한 합의 도출 등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는 형식적 측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과 공개 경쟁 등의 선임 방식을 취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의견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임원 후보자의 선정부서 검증, 임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광주 교육센터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참관한 뒤 교육생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삼성전자

효성, 기술자립 선언... 탄소섬유 1兆 투자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개최
2028년까지 생산라인 12배 확대

효성이 탄소섬유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효성은 20일 효성첨단소재(주) 전주 탄소섬유 공장에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을 열었다.

효성은 2028년까지 탄소섬유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2000t(톤) 규모였던 생산라인을 12배인 2만4000톤까지 확대한다.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현재 1차 증설을 진행 중이며, 2020년 1월부터 2000톤 규모 탄소섬유 공장을 완공하고 2월부터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효성은 2028년 증설 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 톱3위로 올라설 것



조현준 효성 회장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탄소섬유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도 2300개 이상 창출할 예정이다.

앞서 효성은 2011년 국내 최초로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탄섬’을 개발해 2013년부터 생산중이다. 일본과 미국, 독일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다.

탄소섬유는 수소자동차 수소연료탱크 핵심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다. 2030년까지 시장이 12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탄소섬유의 미래 가치에 주목해 독자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탄소섬유 후방산업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수소경제로 탄소섬유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만큼 탄소섬유를 더욱 키워 ‘소재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겠다”며 “또 다른 소재 사업의 씨앗을 심기 위해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성장요인 찾기 힘들어... 누적 자본 투자돼야”

>> 1면 ‘저평가 늪에 빠진...’서 계속

◆실적 2배 늘어도 주가는 ‘찝찝’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시총 상위 100개사(삼성전자 우선주 포함) 시총은 총 947조7054억원, 영업이익은 801조5927억원이었다. 이후 지난해 시총 100개사 시총의 합은 1087조4484억원, 영업이익은 1115조5223억원이었다. 9년간 영업이익은 39.2% 늘었지만, 시총은 14.7%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다.

특히 2017년 시총 상위 100개사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2.4% 이상 늘었지만, 시총은 25.9%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2018년은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났지만 실적 개선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시총은 19.5%나 줄어들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라는 지적이다.

김형철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배를 밑돌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영역에 있다”면서 “저 PBR 환경에서도 투자자가 주가를 싸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장부가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증시는 규모의 경제한계를 드러내는 전통제조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 성장요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제조산업의 누적된 자본이 플랫폼 경제의 성장 아이টে에 투자되어야 선순환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들은 벌어들인 수익을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총상위 100개 기업(올 1분기 말 기준) 중 최근 3개년의 부채비율 추산이 가능한 93개 종목을 선별한 결과 지난 2017년 1분기 평균 212.33%였던 부채비율이 올 1분기 181.59%로 줄어 들었다. 해당 기간 현금성 자산은 평균 713억원에서 773억원으로 8.4% 늘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文대통령 “하림,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모범”

>> 1면 ‘탄소섬유 국가...’서 계속

익산 분사 방문... 임직원 격려

2024년까지 8800억 투자

일자리 2000개 창출 비전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탄소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다. 오늘 탄소섬유 신규투자가 우리 첨단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효성-전북-전주시 투자협약식 후 효성첨단소재 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고, 탄소섬유 공

정 및 수소저장용기 생산과정 등을 시찰했다.

전주를 찾은 문 대통령은 발길을 돌려 오후 4시쯤 익산에 위치한 하림 본사를 찾았다. 하림이 농식품산업 지역 발전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88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0명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하림 본사를 찾아 “하림은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것과 달리 그간 발전의 토대가 된 익산에 본사를 두고 성장의 과실을 지역과 함께 나누는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격려했다. 계속해서 앞으로 도 지역,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하림의 투자 계획 보고를 들은 후 닭고기 가공공

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산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식품산업의 혁신이 우리 농축산업 혁신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도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식품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축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와 가축 방역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전북행과 관련 “탄소섬유 및 식품산업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함”이라며 “동시에 해당 기업들도 생산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아베의 진짜 속셈은... 美와 손잡고 '반도체 코리아' 압박

日, 반도체산업 재육성 준비태세 수출규제 전 韓 반도체 정밀 분석 美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 확대 中·대만 등 주변국들도 기회 엿바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 재육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힘을 싣고 있다는 우려적인 분석도 나온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9일 포토투리스트 수출을 허가했다. JSR이 수출하고 삼성전자가 수입하는 내용이다.

수량은 삼성전자가 EUV 공정에서 약 6개월을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이미 3개월여 분량을 비축해두고 있었던 만큼, 시스템 반도체 생산도 앞으로 9개월간은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21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둔 조치라는 추측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 라인 전경.

/삼성전자

힘이 실린다.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수출규제 조치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일본 측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일본 정부도 조용히 사태를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단, 수급 불안정성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포토투리스트가 수출규제 품목 중 가장 명분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데다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방침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토투리스트를 제외한 품목은 여전히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

황으로 전해졌다.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수출 규제에 앞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밀 분석해 공격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다.

미국 반도체 업계가 개입된 정황은 '반도체 코리아'가 자칫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전해준다.

마이크론이 핵심이다. 미국 마이크론은 최근 히로시마 공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본 엘피다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곳으로, 10나노대 D램 생산을 늘릴 것으로 추정된다.

낸드플래시 업체인 도시바도 재기를 시작했다. 정전사고로 멈췄던 공장을 정상화하고 기타카미에 새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SK하이닉스에 팔았던 주식을 다시 회수한다는 계획도 진행 중이라는 전언이다.

일본 IT 업계는 메모리 반도체 상당 수를 마이크론과 도시바 등에서 공급해

왔던 만큼, 일본 반도체 부활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는 일본 소니가 수출 규제로 수해를 볼 수 있다. 이미 지센서 시장에서 빠르게 추격하던 삼성전자를 밀어낼 수 있어서다.

대만 역시 일본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파운드리 시장 압도적인 1위였던 TSMC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중국도 우리편은 아니다. 국내 메모리 산업이 주춤하면서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포기했던 메모리 반도체 양산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미국 인텔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코리아가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미국 AMD와 퀄컴, 엔비디아 등과 오랜 관계를 맺어왔고, 최근에는 중국 화웨이와도 이미 지센서를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협력 관계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일본 수출규제 피해 中企 돕자 고려대도 산업생태계 적극 지원

관련 산업체와 협력 연구 강화 캠퍼스, 혁신 플랫폼으로 개방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한 대학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생태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캠퍼스를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고려대는 이를 위해 이달 내로 연구부총장을 중심으로 '산업지원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공학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뿐 아니라 경영컨설팅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 제시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려대 산업지원 특별위원회는 공학 관련 연구소 이외에 교내 기업경영연구원,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글로벌 일본연구원 등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우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체와의 협력연구를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고려대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초학제적 캠퍼스로 변화해가는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 혁신도 수행할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소재·부품·장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 산업체 애로기술 및 수요기술 지원 확대 ▲ 노하우 및 기술이전 전방위 지원 ▲ 공동 R&BD 기획 및 상용화 ▲ 잠재력 있는 협력 기업 발굴 지원 등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 통상, 조세, 수입국다변화 등 경영컨설팅 ▲ 고려대-와세다대학 공동위원회 제언 ▲ 계약학과를 통한

기업-대학 간 협력 강화 ▲ 기업과 대학 공동 벤처 창업 활성화 등 산업체 애로사항에 대해 대학내 모든 역량을 모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그동안 전담부서를 두고 산업체와 연구진을 연결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나,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산학협력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우선 신속하게 대처해 지원한다.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 재산을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학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초연구력이 산업체 응용연구로 연결되도록 국책연구소나 산업체와 함께 국제적 협력 채널 구축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공과대 화학공학 연구정보센터와 열역학물성 데이터센터가 중심이 돼 화학제조업체인 머크(Merk)사와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전자 부품 제조에 필요한 화학소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일본의 자율준수규정(ICP)을 인증받은 기업으로 거래선을 변경하거나 일본 이외의 기업을 찾을 때도 고려대 각 분야 전문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다.

고려대는 기업 기술개발 지원 외에도 양국이 경제·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대학의 학술적인 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고려대는 장기적으로 산업생태계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체와 함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계약학과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의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나아가 캠퍼스 전체가 지역과 산업체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중기부, 여성기업에 1100억 규모 보증 지원

우리은행과 '자상한 기업' MOU 매칭펀드 50억 투자,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은행과 손잡고 여성기업인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중기부와 우리은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1100억원 규모의 여성경제인 사업경쟁력 강화 및 창업 지원금을 지급을 돕는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와 기술보증기금에 약 70억원의 특별 출연금을 지급한다. 신보중앙회와 기보는 출연금을 바탕으로 각각 100억원,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성인증기업, 여성벤처기업, 여성이노비즈 인증기업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용 금융상품도 출시한다. 우리은행은 여성기업에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금리를 최대 1.2%까지 인하해주는 여성경제인 전용 수신·여신 우대 상품을 내놓는다. 대출



2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한도도 10% 추가된다.

아울러 여성기업대상 매칭펀드에도 최대 50억원 투자한다. 여성스타트업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우리은행 혁신금융투자 지원 시 서류전형을 면제 혜택도 준다.

여성경영인의 컨설팅도 돕는다. 우리은행은 경영전략·오퍼레이션(운영)·재무·세무 관련 컨설팅 무료로 제공해 여성기업의 컨설팅 시스템도 강화한다.

우리은행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룹사인 우리은행 앵커투자자가 3000억원을 출자해 5년간 2조10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금융권 최초 핀테크 특화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한다.

혁신·창업·사회적기업에는 올해부터 5년간 31조1000억원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에도 6억원 출자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3조원의 금융지원과 무료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의 금융혁신 역량과 여성경제인의 잠재력이 융합돼 '여성기업의 성공시대'를 여는 계기로 만들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자상한 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우리은행이 여성경제인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으로 이뤄진 의미있는 협약"이라며 "우리은행이 은행권 중에서 2년 연속 여성고용 1위를 기록하는 등 여성경제에도 힘쓰고 있어 우리은행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자상한 기업을 맺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체결에 앞서 박영선 장관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둘러봤다. 아울러 여성기업의 실질적 컨설팅 강화를 위해 '여경협 15개 지회장과 우리은행 15개 지역 영업본부장'의 매칭 행사도 진행됐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삼성전자, 도쿄서 파운드리 포럼 강행

삼성전자가 일본 수출규제에도 현지에 EUV 공정 파운드리 기술력을 과시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4일 도쿄에서 열리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 2019 재팬'을 준비 중이다.

당초 한일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취소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예

정대로 강행하게 됐다는 얘기가.

파운드리포럼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 사업 로드맵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행사다. 올해에는 EUV를 이용한 7나노와 5나노 양산, 이후 극미세 공정 계획까지 다루고 있다. 5G 이동통신과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등 솔루션도 선보인다.

정성승 파운드리사업부 사장과 마케팅팀장 이상현 사무총장도 참석한다. 현지 팸리스와 디자인하우스, 애널리스트 등이 삼성전자 기술력을 직접 듣게 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고객사들과 약속을 우선시함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행보를 보인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P2P관련 법안 국회 소위원회 통과

대부업 문패 떼고 투자 한도도 확대

지난해 사기 횡령 등 규제 사각지대로 불려 온 P2P금융이 2년 만에 법제화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P2P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늘어난 투자규모에 따라 투자자보호는 한층 강화되고 P2P 금융 시장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P2P금융은 돈이 필요한 대출자와 여유자금이 있는 다수의 투자자를 대출과 투자의 형태로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P2P금융의 누적 대출규모는 2016년 말 6289억원에서 지난해 9월 4조2000억원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업계의 숙원이던 P2P 법안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회의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P2P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P2P법안에는 ▲P2P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3억원→5억원) ▲금융회사 투자허용(채권당 최대 40%) ▲자기자본투자비율 건당 20% 허용 ▲개인투자 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 등이 담겼다.

8퍼센트 이호진 대표는 "P2P금융 법

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더불어 4개월 후 세율 인하로 세금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도 더 커지게 돼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P2P업체, 금융사 40% 투자 확대 큰 손 늘어나

법안이 통과되면 우선 P2P기업은 대부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P2P금융은 별도의 법안이 없어 대부업법으로 분류돼 왔다. P2P기업이 플랫폼과 별도로 자회사 형태의 대부업체를 두고 영업했다면 앞으로는 별도의 자회사(연계 대부업체)를 마련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은행업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처럼 P2P금융업법으로 P2P금융의 성향에 따라 기업을 규제한다는 설명이다.

자기자본투자 허용기준도 2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자금에 한해서만 대출이 허용됐다. 예컨대 A가 1000만원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투자자금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핀테크 업계의 주목이 쏠렸던 'P2P대출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로 1000만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 앞으로는 1000만원 대출 신청에 800만원의 투자자금만 모이면 200만원은 P2P기업이 채워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비중도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의 P2P 투자여부는 언급돼 있지 않다.

2년 만에 법제화 첫 관문 넘겨 법안 통과시 대부업 오명 벗어 누적대출 규모 3년새 7배 증가 투자자 보호 P2P법안으로 마련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P2P기업에 투자할 경우 P2P기업이 대출모집인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기관이 대출이 어려운 차주에게 투자한 P2P기업을 추천하고 대출을 진행한다면 P2P기업으로 우회했을 뿐 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한 것과 다를 없다.

업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

기 위해선 금융기관 투자가 필요해 해당 대출을 지배하지 않을 만한 범위(50%이상)내에서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P2P금융 관계자는 "실제 대출업무를 위해 마련한 대부업체 등록은 취소하게 될 것"이라며 "그간 투자를 검토해 온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금리 대출 늘고 소비자보호 강화

특히 이번 P2P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P2P기업이 속해 있는 대부업법은 고금리에 대한 대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P2P금융에 부족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방안이 P2P법안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원금보장이나 수익률 연 20%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과대광고에 대해서도 징계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중인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해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없다.

신규업체의 진입요건으로 최소자기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투자피해 민원은 1867건으로 2017년 62건 대비 30배 이상 증가했다. 부실 기업들이 투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 업계 진입장벽을 높여 부실 P2P기업의 난립사태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기자본투자허용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 참여가 확대되며 중금리 대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기자본투자와 금융기관투자가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금이 모일 때까지 대출승인절차를 미뤄야 했다. 자기자본투자비중이 20% 허용되면 대출승인절차가 빨라지고,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렌딧 김성준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중금리대출이 보다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 중금리대출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훨씬 증가할 수 있다"며 "본회의까지 법제화 과정이 잘 이뤄져 제정법이 잘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신한은행은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2019 프리미엄 브랜드지수(KS-PBI)' 시상식에서 6년 연속 은행 부문 1위, 12년 연속 PB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신한금융그룹 브랜드홍보 부문 이병철 부문장(왼쪽)과 한국표준협회 이상진 회장(오른쪽)이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KS-PBI 은행·PB 부문 1위 동시 수상

디지털 혁신으로 보여준 성과 인정

신한은행은 20일 서울 중구롯데호텔에서 진행된 '2019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시상식에서 6년 연속 은행 부문 1위, 12년 연속 PB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KS-PBI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이다. 매년 대규모 소비자 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브랜드 경쟁력, 미래가치 등을 평가하고, 최고의 프리미엄 가치를 지닌 브랜드를 발표 및 공인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 신한은행은 글로벌 금융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보여준 성과들에 대해 높게 인정받았다.

신한은행은 베트남 현지에서 잘로(Zalo), 모모(MOMO) 등 대표적인 디지

털 기업들과 제휴사업을 추진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소개하는 등 베트남 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베트남 은행권 최초로 고자산 고객 특화 영업점 '신한 PWM 푸미흥 센터'도 개점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창구 업무를 디지털화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한 생활금융 플랫폼 '솔(SOL)'은 가입 고객 10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고객을 상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고객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문화를 선도하며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성대규, 고객 직접방문... 소통 경영 '앞장'

(신한생명 사장)

'CEO 현장집무실' 운영 거점지역 최고경영자 방문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이 소통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첫 번째 행보는 현장 집무실 운영이다.

신한생명은 최고경영자(CEO)가 주요 거점지역으로 찾아가는 'CEO 현장 집무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CEO 현장집무실은 고객의 소리를 가장 빨리 경청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분야의 리딩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새롭게 실시하는 고객참여제도다. 거점지역을 최고경영자가 직접 방문하고 고객, 설계사들과 소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 번째 CEO 현장집무실은 지난 16일 경북 경주에서 진행됐다. 대구권역 고객·설계사·지점장 27명이 현장 패널로 참여했다.

SC제일은행-뱅크샐러드 마이데이터 활성화 '맞손'

분산된 개인 금융 정보 한 번에 확인

SC제일은행은 20일 뱅크샐러드와 마이데이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카드 등 다양



지난 16일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첫 번째 'CEO 현장집무실'에서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이 고객 패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한생명

고객패널 의견 중에는 ▲젊은세대가 보험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품 개발 ▲종신보험 가입해도 증액 ▲VIP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장기유지고객 관리 방식 개선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제안됐다.

이날 성대규 사장은 "CEO 현장집무실을 통해 292만여명의 고객들이 생생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관련 부서에 신

속하게 전달하고 경영활동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생명은 새로운 고객참여제도인 '100인(인)의 고객배심원단'을 9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배심원단은 신한생명 고객에 한해 온라인 80명, 오프라인 20명의 배심원을 선발한다.

/김희주 기자 hj89@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이번 제휴로 뱅크샐러드와 긴밀하게 협력해 데이터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한다.

뱅크샐러드가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 및 상품 추천 역량을 활용해 구독 금융 서비스, 무서류 간편 대출 등과 같은 한층 정교하고 차별화된 금융 상품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이 정시성 등 서비스 품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20일 개최된 'CEO 월례조회'에서 임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현대상선

현대상선 'CEO 월례조회'

초대형선 인도에 맞춰 서비스 품질개선 총력

현대상선이 정시성 등 서비스 품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은 20일 현대상선 사옥에서 개최된 'CEO 월례조회'에서 "내년 초대형선 인도에 맞춰 서비스 양적 확대는 물론, 정시성 등 서비스 품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초대형선 발주, 디얼라이언스 가입 등 경영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현대상선은 8월 초 선복량 증가와 얼라이언스 신규 가입에 대비해 해외 현지 전문가를 영입하고 변화관리조직을 신설하는 등 양적 확대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고객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현대상선은 덴마크 해운분석기관 '시인텔'에서 상위 15개 글로벌 선사들의 6월 평균 운항 정시성(얼라이언스 포함) 부문에서 91.8%를 기록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현대상선은 정시성을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은 물론 첨단 IT기술 개발 및 도입해 냉동/중량화물 등 특수화물 관리역량 강화,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품질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연우기자

대우조선해양

주니어 세대 소통 강화 DSME 청년이사회 발족

대우조선해양이 인재경영 실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주니어 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경영반영, 그리고 소통강화를 위해 'DSME 청년이사회'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이사회는 밀레니얼 세대의 아이디어를 회사 정책에 반영하고 주니어-경영진 간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월 청년이사회에 대한 사전공청회를 열어 선발방식,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 뒤 6월 공모를 시작해 총 13명의 청년이사회 멤버를 선발했다. 청년이사회는 매월 1회 CEO(최고경영자)와 정례간담회를 통해 회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개선, 회사 주요 의사결정 과정 시 직원 의견 전달 등 쌍방향 소통 통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경영진 의사결정 회의나 경영설명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연우기자

5G 개척하는 '갤노트10'... 통신시장 '격변'

이통3사, 일제히 개통 기념식

KT, 최대 50% 보상 '슈퍼찬스' 아우라 레드 통해 女 고객 잡기

SKT, 전국 돌며 블루박스 선물 점프 VR 등 5GX 서비스 이벤트

LG U+, 클라우드 게이밍서 첫 선 지포스나우 10월말까지 무료제공

통신사들이 일제히 갤럭시 노트10 개통을 기념했다. 갤럭시 노트10이 5G 로망 출시되는 만큼, 본격적인 5G 시대 개막도 함께 축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19일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노트10 론칭 파티를 열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20일 오전 각각 서울 올림픽공원과 종각 LG유플러스 직영점에서 개통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20일 사전예약자 개통을 기념해서 열렸다. 공식 판매는 2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각 사는 노트10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셀럽'을 불러모았다. KT는 모델인 가수 강다니엘을, SKT는 김연아 선수와 아나운서 최희 등을, LG유플러스는 배우 정지소를 초청했다.

푸짐한 경품도 준비했다. KT는 갤럭시 워치와 TV '세로', 스마트폰 케이스와 강화 유리를, SKT는 갤럭시 버즈와 워치 등을, LG유플러스는 갤럭시탭5Se를 추첨 등을 통해 참가자에 선물했다.



KT는 갤럭시 노트10 론칭 파티에 모델인 강다니엘(오른쪽 2번째)을 초청했다. /KT



SKT는 5G 클러스터인 올림픽공원역에서 갤럭시 노트10 론칭행사를 열고 5G 시대를 함께 축하했다. /SK텔레콤

단, 노트10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통신사마다 서로 달랐다. 요금제와 컬러, 서비스 등 다양한 전략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려는 모습이다.

KT는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데 집중했다. 노트10을 구매하고 12개월 뒤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해주는 '슈퍼찬스' 프로그램을 새로 내놓고, 2년간 최대 72만원을 할인해주는 내용으로 제휴카드 '슈퍼DC2 현대카드'도 선보였다.

야나두와 CGV 등 8개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박스'도 출시했다. 공식 온라인 채널에서는 노트10 구매 고객에 액세서리 쿠폰을 선물하고 중고폰 보상이나 필름 부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스타트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KT는 전용색상 '아우라 레드'를 통해 여성 고객 잡기에도 힘을 실었다. 코스메틱브랜드 헤라와 함께 2019명예 립스틱 증정행사를 준비하면서다. KT는 노트10 가입자 중 절반이 여성이었다며, 행사에서도 메이크업 서비스와 베스트 드레서 시상 등을 진행했다.

SKT도 컬러에 주력했다. 노트 어워즈를 열고 우수고객에 '블루박스'를 선물했다. '노트 블루 팬' 부문을 신설하고 블루색상을 꾸준히 이용한 고객에도 감사를 표했다.

특히 SKT는 5G 경험을 선사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개통식을 연 올림픽 공원은 '5G 클러스터'의 5GX 부스트 파크 중 한 곳, 노트10 체험 트레일러도 같은날 첫 행보를 시작했다. 노트10 트레일러는 노트10 S펜으로

플로 등 서비스를 제어하는 것뿐 아니라, '점프 VR'과 '점프 AR' 등 SKT의 5GX 서비스 및 이벤트를 제공한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소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다. 프리미엄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 엔비디아의 지포스나우를 10월말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것. 행사에서는 사전예약 사은품인 게임패드 '글랩'과 함께 지포스 나우를 직접 시연해보이기도 했다.

노트10 인기에 통신사들은 LTE 모델 국내 출시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에 LTE 모델 출시를 요청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삼성전자에 LTE 버전 출시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 '갤노트10' 130만대 사전 판매... 전작비 2배 증가



갤럭시노트10 아우라 글로우. /삼성전자

노트10+ 모델이 3분의 2 차지 20대 여성 소비자 비중 증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10'이 국내 사전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진행된 갤럭시 노트10 국내 사전 판매에서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100만대 돌파 시점은 17일이다. 최종 사전 판매 물량은 130만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작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사전 판매에서는 갤럭시노트10+의 비중이 약 3분의2를 차지했으며, 갤럭시노트10+(256GB) 아우라 글로우 색상 모델이 가장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 소비자 비중이 전작 대비 증가했다.

갤럭시노트10은 노트 시리즈 최초로 6.3인치 컴팩트한 크기에 S펜 등 노트만의 특징점을 담은 갤럭시노트10과 6.8인치의 역대 최대 디스플레이에 노트의 특징점을 극대화한 갤럭시노트10+의 2가지 크기로 출시됐다.

베젤이 거의 없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에 실감나는 화질로 몰입감 있는 보는 경험을 제공하며, 'S펜'으로 쓴 글씨를 바로 디지털화해 주거나 S펜의 움직임 인식해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에어 액션' 등 마술봉으로 거듭난 스마트 S펜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출고가는 갤럭시노트10 256GB 124만8500원, 갤럭시노트10+ 256GB 139만7000원, 갤럭시노트10+ 512GB 149만6000원이다. 정식 출시일은 오는 23일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한화큐셀, 美 주택 태양광 모듈시장 석권

1분기 점유율 27% 1위
전년동기비 15.4% ↑

한화큐셀은 지난해 미국 주택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분기도 1위를 지켰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발표한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관인 우드매킨지 조사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1분기 미국 주택 태양광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15.4%p 상승한 27.0%를 기록했다. 이는 고효율 중심의 고객지향적 제품 포트폴리오로 미

국 주택 태양광 시장을 꾸준히 공략한 결과다.

미국은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이나 가스 발전에 비해 이미 높은 경제성을 확보했다. 일조시간이 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용 고효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2020년부터 신축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결정도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이같은 미국 태양광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우수한 성능과 품질

을 갖춘 고효율 모듈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큐셀이 지난 2017년부터 론칭해 후속 모델을 지속 출시하고 있는 큐피크 듀오 시리즈는 한화큐셀의 퀀텀 기술(참고자료)에 태양광 셀을 반으로 잘라 저항을 줄여 출력력을 높이는 하프셀 기술이 적용된 모듈이다.

큐피크 듀오 시리즈는 일반 제품 대비 10%이상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국제 표준 품질 기준의 2~3배의 품질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이 뛰어나 미국 소비자들의 엄격한 구매 기준도 충족시



한화큐셀 큐피크 듀오 태양광 모듈 /한화큐셀

키고 있다. 한화큐셀은 뛰어난 제품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우리에게 혁신의 자연스럽다

#친환경 아스팔트

자동차가 달리는 아스팔트도
자연을 닮고 싶으니까

SK이노베이션이 도로를 혁신합니다
30°C를 낮춘 친환경 시공으로

에너지 소비와 미세먼지는 줄이고,
도로의 수명은 길게 늘립니다

우리의 기술이 자연을 닮은 혁신이 되도록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칸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

미래차 기술에 배고픈 현대차... 스타트업에 4400억 투자

‘얼굴인식’ 중 딥글린트에 418억
‘자율차’ 美 오로라에 239억 등
상반기 해외기업 6곳 투자집행

현대자동차가 미래차 기술 개발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만 해외 스타트업 6개사에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상반기에 오디오버스트와 리얼타임로보틱스, 오로라, 펀세어, 아리벨 테크놀로지, 딥글린트 등 6개 스타트업에 모두 779억원을 최초로 출자했다.

투자 금액은 중국의 얼굴인식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글린트가 417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현대차는 5월

에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지분 6.48%를 취득해 딥글린트는 ‘관계사’가 됐다.

앞서 현대차는 작년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전자제품박람회 ‘CES 아시아 2018’에 참가해 딥글린트와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AI를 활용한 영상인식 분야의 선도 스타트업인 딥글린트의 안면인식과 분석 시스템은 50m 거리에서 10명 가운뎃 1명의 얼굴을 1초 안에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도 올해 5월 딥글린트에 59억원을 전략투자했다. 현대모비스는 딥글린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딥러닝을 활용한 차량 내부 동작인식과 패턴 분

석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대차는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로라에 239억1000만원을 투자했다. 오로라에는 기아차도 상반기에 59억8000만원을 출자해 현대차그룹은 298억9000만원을 출자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현재 보유한 오로라의 지분율은 1% 미만으로 추가 출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오디오버스트에도 56억8000만원을 투자해 지분 5.35%를 확보했다. 오디오버스트는 AI를 적용한 오디오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투자도 받은 바 있다.

현대차는 올해 5월에는 미국 로보

스타트업 리얼타임로보틱스에 17억 5500만원을 출자해 지분 2.62%를 확보했다.

이밖에 현대차는 액션 카메라 업체인 펀세어에 29억7800만원, 디지털 후각 관련 스타트업인 프랑스 아리벨 테크놀로지에 15억32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이 지난 3월 발표한 인도 차량호출업체 올라에 대한 전략 투자 계획은 상반기 기준으로는 집행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이 올라에 투자하는 3억 달러(약 3600억원)는 외부 기업에 한 단 일투자자로 역대 최대 규모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LG전자는 IFA2019에 이탈리아 건축가와 협업해 부스를 조성했다.

/LG전자

독일 IFA2019에 ‘LG 시그니처 부스’

건축가 마시밀리아노 폭사스와 협업

LG 시그니처가 이탈리아 유명 건축가와 작품을 만들어낸다.

LG전자는 다음달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2019에서 마시밀리아노 폭사스와 함께 LG 시그니처 부스를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기술에 영감을 주는 예술, 예술을 완성하는 기술’이라는 캠페인 슬로건에 맞춰 협업을 결정했다. ‘무한’을 주제로 원통속 거울을 이용해 LG 시그니처를 표현했다.

전시 제품은 올레드 TV와 냉장고, 세탁기와 에어컨 등 LG시그니처 라인업 전체다.

/김재홍 기자 juk@

LG전자는 기술과 예술을 접목해 고객들에 LG 시그니처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마시밀리아노 폭사스는 “LG 시그니처는 기술과 예술이 완벽히 결합한 결과물”이라며 “집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럭셔리와 프리미엄을 새롭게 정의했다”고 말했다.

LG전자 유럽지역대표 나영배 부사장은 “LG 시그니처의 본질을 건축미의 관점에서 선보일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이다”며 “고객들이 이번 전시에서 초프리미엄 LG 시그니처의 혁신적인 성능과 정제된 디자인을 새로운 방식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갤노트10 홀디스플레이 ‘업계 최고’

글로벌 인증기관 UL서 인정받아

삼성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인증기관 UL(유엘)로부터 ‘갤럭시노트10·10+’용 홀디스플레이의 화질 균일도와 빛 투과율 부문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성능 레이저를 활용한 편칭 기술로 디스플레이 상단부에 완전히 독립된 지름 4.7mm의 홀을 구현했다. 홀의 크기는 상반기 갤럭시S10용 홀디스플레이 대비 더 작고 정교해졌다.

UL은 홀 디스플레이의 화질 균일도를 측정하기 위해 홀 주변부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전면 13개의 포인트를 지정하고 밝기와 색상의 균일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전면 구동했을 때 98%의 색 균일도를 달성했다.

홀 부분의 투과율 측정을 위해 실시된 광량 투과 테스트에서 프리미엄 홀디스플레이는 기존의 스마트폰 카메라와 동일한 92%의 높은 투과율을 기록했다. 이는 홀을 활용해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성능은 카메라 렌즈가 외부에 노출된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와 동일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높은 화질 균일도와 투과율을 가능케 한 것은 플렉시블 OLED만의 간결한 적층 구조다. 박막의 폴리이미드 기판 위에 증착된 플렉시블 OLED는 레이저를 통한 홀 가공에 유리하며 패널의 물리적 변형에 따른 픽셀 변형도 적다. 또한 홀을 포함한 패널 상부에 윈도우 글라스가 올라가는 간결한 구조로 투과율 면에서도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와 동등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독 니르부르크링에 모인 현대차 핵심 임원들

제네시스 ‘시속 280km’ 달리며 한계 시험

현대차그룹, 새 모델 등 성능점검
연구개발·상품개발 임원 등 참여

현대자동차그룹이 제네시스 새 모델 등 차세대 전략차종 성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상품 부문 임원들을 독일 니르부르크링으로 출동시켰다.

현대차그룹은 연구개발본부 전 부문 임원과 상품개발 담당 임원들이 해외에서 함께 차 주행 성능을 점검한 것은 처음이라고 20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15~17일 독일 니르부르크링의 테스트센터에서 현대차·기아차와 제네시스 차세대 전략차종의 성능을 종합 점검하는 트랙 데이였다.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뿐 아니라 디자인담당 투크 동커볼케 부사장, 제품통합개발, 아키텍처, 새시, P M, 내구, 파워트레인, NVH 부문 임원, 현대차의 제품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상품본부의 토마스 슈미에라 부사장, 유럽 권역의 현대차·기아차·제네시스 상품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테스트 모델은 제네시스 G70, JX(개발명·GV80), RG3(개발명·신형 G80)와 현대차 벨로스터 N, i30 N line, 기아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Ceed와 다



지난 16일 독일 라인란트팔트 주 니르부르크에 있는 니르부르크링에서 연구개발 및 상품담당 임원들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개발 중인 테스트 차량들의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른 브랜드의 경쟁 차종이다.

이번 트랙 데이에서는 먼저 아우토반 속도무제한 구간에서 최고 시속 280km까지 달리고 연속 커브가 이어진 국도와 노면이 불규칙한 시골길 등을 주행하며 일반 도로 테스트를 했다. 이어 세계 최장(20.8km)이면서 주행 조건이 가혹한 레이싱 서킷인 니르부르크링에서 한계를 시험했다.

이 같이 연구개발과 상품 관련 임원들이 한 자리에서 차세대 전략 차종 제품 테스트를 대대적으로 한 것은 최근 단행한 제품개발 프로세스 혁신의 연장선상이라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현대차·기아차는 3월 상품본부 조직을 세분화된 차급과 전동화, 미래차 중심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7월

에는 자동차산업 변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조직을 재정비했다.

이번 테스트 장소 선정에는 최근 유럽에서 현대·기아차의 상승세가 영향을 줬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유럽시장에서 처음으로 100만대 판매를 기록하며 점유율 6.7%를 찍었다.

비어만 사장은 “최근 R&D(연구 및 개발) 조직 개편은 제품을 기획하는 상품 부문과 개발 부문간의 협업을 위한 시작점이었다”라며 “이번 트랙데이가 개발자로 한정됐던 현지 평가에 상품 담당자를 포함시켜 앞으로 개발 방향과 프로세스에 혁신을 꾀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철광석 값 25% 급락... 100달러 이하로

철광석 가격이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철강업계는 ‘일회일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철광석 가격은 약 2주만에 25% 급락하며 톤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 철광석 가격 인하가 하반기 실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급락한 만큼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른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중국 철광석 수입 가격은 1월 초 톤당 72.63달러에서 7월 초 124.05달러까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치솟았다가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회사 발리 소유의 브라질 광산 댐 붕괴와 중국 조강 생산량 급증 및 위안화 약세 등으로 지난 15일 88달러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도 가격 하락의

업계, 울며 가격 등락폭 커져
계획대로 하반기 제품값 인상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글로벌 경제 위축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다른 원자재보다 상승 폭이 컸던 철광석이 영향을 받았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선다. 상반기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제품이 인상으로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철강업계는 철광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 부진 탓에 올 상반기 후반(조선업 주요 원재료인 두께 6mm 이상 철판)과 자동차강판 가격을 동결한 바 있다. /정연우 기자

증시폭락에도 잘나가는 증권株... 3분기 전망도 '好好'

3분기 영업이익 전망 34% 증가
2분기 IB·PI 수익창출에 호실적
미래에셋대우 등 '최선호주' 꼽아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종의 나홀로 성장세가 눈에 띈다. 지수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IB(기업금융)를 위주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증권사가 올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업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34.44% 증가한 7845억원이다. 지난달에 비해 기대치가 3.53% 상향됐다.

증권업종은 올해 증권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 하락이 예상됐다. 하지만 증권사가 지난 2분기 IB, PI(자기자본투자)를 위주

(2019 2분기 증권업 순이익)

| 구분 | 직전추정 | 잠정치 | 전년대비 | 전분기대비 | 컨센서스 |
|--------|-------|-------|-------|-------|-------|
| 미래에셋대우 | 190.9 | 218.4 | 40.3 | 30.7 | 167.9 |
| 한국금융지주 | 194.1 | 208.2 | 19.4 | -19.4 | 188.3 |
| NH투자증권 | 123.6 | 107.3 | -8.1 | -37.3 | 118.1 |
| 키움증권 | 68.5 | 55.5 | -30.2 | -64.8 | 61.7 |
| 삼성증권 | 102.3 | 96.2 | -3.8 | -17.9 | 104.7 |

(자료=각사,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호실적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3분기 증시 폭락 분위기와 별개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영업이익 기대치도 연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형증권사의 경우 과거 대비 커진 자본력을 바탕으로 IB관련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또 금리인하 장기적으로 증시주변의 유동성을 넓히고 증권사 채권 자산운용에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즉 3분기에도 견조한

실적 시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바야흐로 IB시대'가 도래한 만큼 IB수익이 높은 대형증권사를 위주로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업계 1,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한국금융지주(한국금융투자)가 관심종목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2분기 미래에셋대우와 한국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든 증권사들이 IB관련 수익만큼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삼성증권의 지

난 2분기 IB부문 수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의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6.2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이라며 최선호주로 꼽았다.

채권평가이익이 3분기 실적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리 하락에 따라 채권가격이 오르면서 그에 따른 이익이 증권사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채권 및 파생결합증권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됐다고 판단, 3분기 역시 채권평가이익만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B부문 성장은 2~3분기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2분기 우수한 실적을 시현한 증권사에 대한 선호가 3분기 실적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해외주식 투자전략 세미나

KB증권 베트남 부동산·주식 세미나 개최

8/29(목) 오후4시, 서울 역삼 포스코타워



KB증권 29일 베트남 부동산 세미나

KB증권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해외주식 투자전략 세미나 '베트남 부동산·주식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1부에서는 VNK투자자문 고문 대표를 초청해 최근 고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부동산 및 투자전략을 소개한다. VNK투자자문은 베트남 현지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2,3부에서는 KB증권 리서치센터 이창민 연구원과 글로벌BK솔루션팀 전래훈 과장이 베트남 경제와 투자전략, 유망종목 등에 대해 전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KB증권 홈페이지나 글로벌BK솔루션팀을 통해 유선 접수 가능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손영지 기자

5G 통신주 "저가매수 기회" vs "반등 어렵다"

이통사 실적부진에 엇갈린 전망
SKT·KT, 52주만에 최저가 기록

5G 관련주인 이통통신사들의 주가가 실적 부진으로 최근 52주 최저가를 새로 썼다.

주가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가매수'라는 의견과 '마케팅 비용 부담'으로 당분간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은 16일 전 거래일 대비 3.14% 하락한 23만1500원에 장을 마쳐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KT와 역시 전일 대비 1.12% 하락한 2만6500원으로 52주 최저가를 다시 썼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반기에 이동전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상승하면서 5G통신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2분기 759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7% 급감했지만 3분기에는 전 분기에 비해 21% 증가한 9195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이제는 3분기 실적 호전주로 이동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통신 3사 5G 가입자 순증 합계가 월 60만명에 이르러 단말기교체 가입자의 30%로 확대되고 있다"며 "3분기 통신 3사 마케팅비용 합계가 2분기 대

비 2% 증가가 예상되나 ARPU이 전 분기에 비해 1.3%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증가가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통신 3사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G 마케팅 비용을 집중 투입하는 점이 걸림돌이 돼 주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5G 가입자 증가로 통신서비스업체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금 확대 정책이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최근 통신업체의 주가는 마케팅 이슈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5G 시장 선점과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

가로 주가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5G 가입자 증가에 따라 5G 통신장비업체의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윤창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닥 반등에 대비해 성장주에 주목해야 할 때라며 성장주 중 하나로 5G 관련주를 꼽았다. 통신 3사는 올해 8조 2000억원에서 최고 8조 5000억원까지 시설 투자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장비업체의 수혜를 예상했다. 그는 관련 톱픽(최선호주)으로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무선·유선 네트워크의 국내 및 해외 투자에 따른 동시 수혜가 기대되는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업체에 대해 프알을 꼽았다. /채윤정 기자 echo@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수 확대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가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다른 자격시험 위원수에 비해 위원수가 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 확대와 공인회계사가 비자발적 주식취득시 직무가 제한되는 규정을 개정된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 포함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회위원을 추가해 4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을 7명으로 구성해 당연직 위원의 비중을 줄인다. /나유리 기자 yul115@

중 상하이서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상하이에서 글로벌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미래에셋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업계 최대 어린이펀드인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G1호 펀드'와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펀드' 가입자 가운데 선발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7~11일, 14~17일까지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참석인원은 총 171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이번 31회까지 누적인원은 1만2000명이 넘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각 판매사의 보수에서 15%씩 적립한 기금으로 진행되며, 참가비용은 무료다.

이 행사는 박물관, 동방명주 등 역사·문화 분야에서 모바일페이, 스마트 공유자전거 모바일 이용 등 경제 체험학습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3·1운동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가입자 171명 선정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 참가자들이 중국 상하이 루신공원 내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청사를 비롯해 루신공원에 위치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경주 미래에셋자산운용 마케팅부 문 부회장은 "미래에셋은 어린이를 위

한 장기적립식펀드 문화 형성에 힘써왔고, 우리아이글로벌리더대장정을 통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경제·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키움증권 팟빵서 아침시황 등 제공

키움증권은 리서치센터 서상영 투자전략팀장의 아침 시황 및 장마감 시황을 채널K, 팟빵 채널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상영 팀장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해외의 주요 이슈와 국내 투자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매일 새벽 3시부터 일과를 시작해 미국 증시와 해외 이슈들을 분석한 다음 '서상영의 아침시황'을 직접 제작해 오전 7시경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다. 오전 8시30분에는 채널K 생방송으로 미국 증시 마감상황을 정리해주고 국내증시 투자전략을 제시, 오후 3시15분에는 마감시황을 통해 당일의 시장 변수들을 짚고 내일 장 투자전략을 제시해 준다. /김유진 기자

하이투자증권 부산 구서지점 27일 자산관리 설명회

하이투자증권 부산 구서지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40분 객장에서 '2019 하반기 자산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권명재 하이투자증권 과장이 강사로 나서 '투자 변곡점에서 다시 짜는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수익화하는 방법, 코스피 하락장에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노하우, 하락장에서도 하락하지 않는 강력한 기업 해부하기,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알파(+α) 수익률 얻기,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투자상품 소개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 장세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투자 꿀팁을 전한다. 설명회는 사전 예약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손영지 기자

“고령층 디지털 소외 심각… 수명연장 감안한 재무설계를”

민병두 의원실 -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초고령 사회’ 세미나

고령 위한 보편적·선택적 복지 필요
관련자문·질의 위한 정보제공 중요

국내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금융복지를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 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를 통해 “최근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소득 없이 오래 사는 은퇴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의 기술혁신도 가속화되면서 고령층이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문제도 점점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제도적 장치 등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층, 나이는 ↑ 소득은 ↓

우리나라의 인구의 고령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노년층의 노후자금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은퇴

및 노후준비실태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부부를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327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40대와 50대 세대의 국민연금 희망 수령액은 126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생활비금액과 조달가능 금액 간 차이가 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불가능한 것.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우리가 맞이할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자금 마련이 중요하다”며 “노후를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개인 스스로 좀 더 일찍 노후 대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이끈 정운영 금융과행복 네트워크 의장은 “금융복지를 통해 고령층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이들의 물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만으로 영역을 제한해선 안된다”며 “금융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함양하고, 소비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사전 예방적 측면의 보편적 복지와 금융소외계층의 안정을 지원하는 사후적 측면의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에 참여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뒤에서 여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이어 그는 “고령층일수록 금융사기 등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제적 학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및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노년층의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층 디지털 소외 ↑… 제도·교육 강화해야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년층일수록 디지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려 하기보다 회피하려 하거나 접근하더라도 잘못 접근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들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을 이용한 사기 등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당국과 기업 측면에서 취약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과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소비자 지원 측면에서 금융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년층에게 디지털 지식을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거나 질의를 할 수 있는 채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와 아일랜드는 공공기관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 소재 글로벌 은행인 바클레이스(Barclays) 등 민간 기구는 자체적으로 고객들이 디지털과 친숙해지도록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을 마련해 지점 및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고령층의 수명 연장을 감안한 적절한 재무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서 고령층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적합하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채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투자, 보험 뿐만 아니라 대출의 경우에도 고령층의 연금소득, 지출비용 등을 고려한 심사 기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대한항공, 日 노선 줄이고 동남아 확대

동남아·대양주·중국 노선 공급 늘려
내달 16일부터 오사카 등 운휴 돌입

대한항공은 19일 일본 일부 노선에 대한 운휴 및 감편과 함께 동남아, 대양주, 중국 노선 등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16일부터 부산-오사카노선(주 14회) 운휴에 들어간다. 11월 1일부터는 제주-나리타노선(주 3회), 제주-오사카노선(주 4회)도 운휴한다.

일부 기간만 운항하지 않는 노선도 있다. 인천-고마츠노선(주 3회), 인천-가고시마노선(주 3회)의 경우 다음달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인천-아사히카와노선(주 5회) 노선은 다음달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항을 중단한다.

감편 노선도 있다. 주 28회 운항하던 인천-오사카노선과 인천-후쿠오카노선은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각 주 21회로 감편한다. 또한 다음달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 7회 운항하던 인천-오키나와노선은 주 4회로, 주 14회 운항하던 부산-나리타 및 부산-후쿠오카노선은 주 7회로 각각 감편한다.

이에 대한항공은 일본 노선 수요 감



보잉 787-9 항공기. /대한항공

소로 여유가 생긴 공급력을 동계 스케줄 시작에 맞춰 동남아노선, 대양주노선, 중국노선에 고루 투입해 노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먼저 대한항공은 10월 27일부터 인천-클락노선에 주 7회 신규 취항한다. 또한 인천-다낭노선에 주 7회를 추가 증편해 총 주 21회를 운항할 예정이며, 인천-치앙마이노선과 인천-발리노선도 주 4회를 늘려 총 주 11회를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대양주노선인 인천-브리즈번노선도 주 2회를 늘려 총 주 7회를 운항한다.

중국 노선에는 신규 취항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인천-장가계노선에 주 3회, 인천-항저우노선에 주 3회, 인천-난징노선에 주 4회 각각 신규 취항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인천-북경노선의 경우 주 3회 늘려 주 17회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경총, 정부에 유연근무제도 개선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취지는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며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해 확대해야하겠지만, 국회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를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서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업무형 업무를 허용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재용 기자 juk@

직진하는 조국… 가족문제 언급없이 정책 발표

펀드투자·부동산 등 각종 의혹 속에
정책 비전 발표… ‘물타기’ 지적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첫 정책발표를 했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에 대한 야권의 끊임없는 의혹 제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 발표가 물타기라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자녀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책 검증으로 맞서며 이같이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실천을 위한 첫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우선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대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상기했다.

전자발찌제도 도입 이후 성범죄자 재범률이 약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전자발찌로 재범을 100% 예방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에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 감독을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하겠다는 것이 조 후보자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시에 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러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또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성으로부터 집착과 폭력,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조 후보자는 ‘스토커처벌법’ 제정으로 가해자 엄단 및 피해자 보호 의지를 나타냈다.

또 ‘가정폭력처벌법’ 등 개정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사범에 한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

감독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조 후보자는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1대1 전담보호관찰, 정신질환자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 등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계속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정치인도 아닌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정책발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이슈를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국 후보자 측도 확산하는 의혹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책발표를 통해 이슈를 돌리려는 것 같다”며 “이념 편향부터 후보자 딸의 문제까지 고강도 검증 공세가 이어지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정책적 화두를 제시했지만,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정도 뿐”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여야 3당 간사회회를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다음달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기간 내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9월 초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치피가 클까? 내 얼굴이 클까?

NEW

치피치이

한국식 파이형 치킨디저트

(요니엔 / 치즈 / 칠리)
시즈닝과 함께 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 200원



 더 크고 매운맛
하버네로 (L)
₩4,300

VS



고소한맛 (S)
₩3,400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간도 판매 지역

“어! 내비 도착시간이 이상하네”

현대·기아차, 일부차량에 오류

서비스센터선 “본사 지침 없지만 센터 찾은 고객들에 서비스 제공”

현대·기아차의 순정 맵핑형 내비게이션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비게이션 오류로 날짜와 시간이 수신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본사에서 이같은 상황에 따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일부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지난 17일부터 날짜와 시간이 수신되지 않아 서비스센터를 찾는 소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정수석 부회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고객의 쓴

소리를 경청하고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의 한 정비사는 “지난 17일부터 이같은 문제로 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아직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는 상태지만 센터를 찾은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비게이션 오류로 발생하는 현상은 ▲내비게이션 도착시간 오류 ▲날짜 오류 ▲시계 사라짐 등이다.

현대·기아차 차량은 GPS를 통해 운전자 위치를 확인해 시간을 수신하고 내비게이션을 실행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차량들은 날짜와 시간을 수신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소비자들은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오류 해결을 위해 GPS ‘오프’(off) 후 ‘온’(on)으로 설정하기 → 리셋하기 → 업데이트하기 순서로 진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2018년형 싼타페 차량을 구매한 김모씨는 “지난 주말에 가족과 여행을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설정한 뒤 도착시간을 확인하고 황당했다”며 “현대·기아차에서 이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오류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스티븐 왕 사오미 동아시아 마케팅 총괄 매니저가 20일 서울 DDP에서 열린 사오미 신제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샤오미, 3만원대 ‘미 스마트밴드4’ 공개

화면 39.9% 커지고 풀컬러 탑재 무선 이어폰, 금속 캐리어도 첫 선

샤오미가 가성비를 앞세운 3만원대 스포츠 밴드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샤오미는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제품 4종 공개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을 발표했다.

미(Mi) 스마트 밴드는 샤오미가 2014년 처음 내놓은 제품으로 터치스크린을 통해 운동 기록뿐만 아니라 메시지·앱 알림·날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기기다.

이날 샤오미가 공개한 미 스마트 밴드4 출고가는 31900원이다. 샤오미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핏과 핏비트의 인스파이어 등 타사의 스포츠 밴드의 가격과 성능을 언급하며 자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다. 갤럭시 핏과 핏비트 인스파이어의 출고가는 각각 11만8800원, 10만9000원이다. 현장에서는 가격 공개와 동시에 저렴한 가격에 놀라는 탄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스티븐 왕 사오미 동아시아 총괄매니저는 “샤오미가 시장에 선보이는 모든 제품들은 순수익률 5%를 넘지 않는다”며 “샤오미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최적의 가격에 제공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대량 생산을 통해 샤오미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스마트 밴드4는 전작보다 화면이



미 스마트밴드 4. /샤오미

39.9% 커졌으며 풀컬러 AMOLED를 탑재했다. 1600만 가지가 넘는 색을 표시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한 6축의 센서는 보다 정확한 운동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수영 트래킹 기능이 추가됐다.

예약판매는 20일부터 진행되며 정식 판매일은 오는 23일이다. 쿠팡을 통해 판매하며 샤오미는 향후 판매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샤오미는 출고가 39900원의 무선 이어폰 ‘에어닷 청춘판’, 19만9000원의 ‘금속 캐리어’, 69900원의 ‘폴리카보네이트 캐리어’도 함께 공개했다. 이어폰 소개에서도 샤오미는 삼성전자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가 15만9500원인데 기능은 비슷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에어닷 청춘판은 오는 23일부터 쿠팡과 위메프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샤오미 동아시아 총괄매니저 스티븐 왕이 처음으로 국내 언론에 나서며 한국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샤오미는 최근 한국 시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총괄매니저를 선임한 바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현대重 노조, 오늘 금속노조 파업 동참

현대중공업, 2분기 영업손실에 목표수주 실적 달성률 27% 그쳐 파업결정에 생산성 차질 등 우려 노조, 조합원 1400명 징계 대응

현대중공업 노조가 21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해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2분기 영업손실과 함께 올해 목표 수주 실적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노조의 이번 파업결정이 현대중공업의 앞날에 득이 될지 득이 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전 조합원 파업을 결정했다.

또 28일에는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

선사 노조들이 모인 ‘조선업종 노동연대’가 7시간 파업과 함께 서울 광화문 상경 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성동조선, STX조선, 한진중공업 노조가 참여한다.

노조가 올해 임금 교섭과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등으로 파업권을 획득한 뒤 벌이는 첫 파업이다.

현대중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526원(6.68%) 인상, 성과급 현대중공업지주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 지급, 연차별 호봉승급분 격차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에서는 임단협과 관련해 사측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급 인상은 사실상 어려우

며 이와 관련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노조는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 1400여 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파업 동참을 결정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 주주총회 당시 접거농성을 벌인 노조원을 대상으로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조합원은 생산 차질 유발, 파업 상습 참가 등의 이유로 징계, 감봉, 출근 금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 결정과 관련해 생산성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 48억달러(잠정치)를 수주해 올해 수주목표(178억달러)의 27%를 달성하는데 그쳤다. 또한 2분기 실적에서는 해양플랜트부문 부진으로 571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정연우 기자 ywi964@

올 신규벤처투자 2.4조... 7개월째 ‘역대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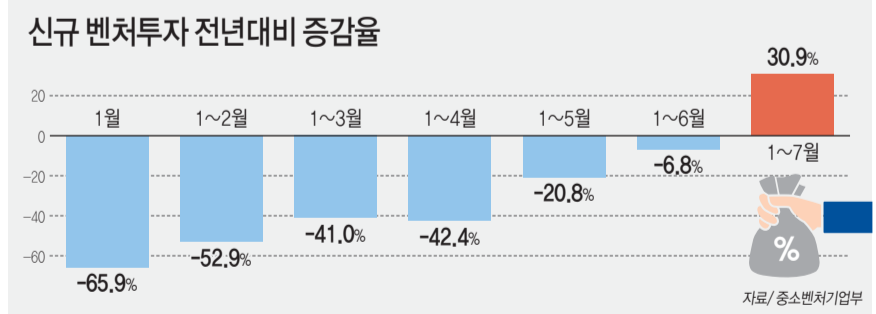
중기벤처부-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펀드 결성액 2조, 역대최고 기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벤처투자가 2조3739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이 2조556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7월 신규 벤처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증가한 것으로, 올해 들어 7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중기부는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데 이어 7월 기준으로 7.4%포인트(p) 더 높아지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올해 전체 벤처투자 목표치인 4조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펀드 결성액은 7월 한 달 동안 7316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월 평균 결성액 2196억원의 3.3배에 달하



는 것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하반기 모태펀드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출자를 확대하면 벤처펀드 결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부는 최근 벤처펀드 결성액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제2 벤처 붐과 함께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벤처펀드

결성액 2조556억원 중에서는 민간 출자액이 1조5644억원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정책기관이 출자한 4912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해 1~7월 민간 출자액 비중 62.9%와 비교하면 13.2%p 높아졌다.

특히 개인의 출자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벤처펀드 출자액 중 개인 출자액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개인 출자액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김승호 기자 bada@

“셀프 체크인으로 대기시간 줄이세요”

아시아나항공, 인천국제공항서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 운영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최초로 전용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을 운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C존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전용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 오픈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자동수하물위탁 서비스는 승객들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체크인이나 C존에 배치된 셀프체크인 기기를 통해 탑승수속을 마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수하물위탁 기기에 탑승권을 인식한 후 수하물 태그를 발급받아 직원을 거치지 않고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위탁하는 서비스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C존에 하이브리드

형 셀프백드롭 기기 28대를 배치해,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을 운영한다. 실제로는 지난해 말 14대의 셀프백드롭 기기를 배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으며 8월 14대를 추가해 본격적으로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을 오픈한다.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에 설치된 셀프백드롭 기기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기기로 필요에 따라 유인카운터로 전환이 가능해, 수속 대기 현황에 따라 유인 혹은 무인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을 이용하면 셀프체크인을 이용한 고객들이 유인카운터에서 수하물을 맡기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고객들이 보다 편하고 여유롭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연우 기자

대림산업, 하도급 불공정 행위로 동반성장 최우수 박탈

3년간 700곳 넘는 중소기업에 '갑질' 3단계 낮춰진 '양호' 강등 될 듯

3년간 700곳이 넘는 하도급 중소기업에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난 대림산업이 결국 '최우수' 동반성장 등급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대규모 불공정행위 및 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고, 이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림산업에 대해 '등급 강등'을 9월 초 예정된 동반위 본회의에서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나온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대림산업은 이번에 대규모 갑질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두단계 낮은 '양호' 단계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동반위는 운영기준에 따라 대림산업에 대해 등급강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23일 열린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약 4만건에 달하는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2897건의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위반 행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으로 대림산업은 이 기간 총 759개 수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적발된 대림

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50%와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도 설문조사' 50%를 합산해 전년의 결과를 이듬해 상반기 말에 산정·공표한다.

다만 이번처럼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법 위반 기업에 대해 '등급강등'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그때 그때 취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나온 후 3개월 안에 등급강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직전 공표된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소급해 조정하게 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대림산업 관련 조사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규정에 따라 가장 빠른 9월 초에 예정된 동반위 본회의에서 의결해 등급강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순으로 매겨진다.

지난 6월 발표에서 2018년 등급에 대해 '최우수'를 받은 대림산업의 경우 규정에 따라 최대 두 단계까지 등급강등이 가능하다.

동반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 적지 않은 위법행위가 발견된 만큼 본회의 전에 예단하긴 어렵지만 대림산업을 한 단계 낮은 '양호' 등급으로 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는 2015년 4월부터 3년간이고, 동반위의 '최우수' 평가는 2018년에 대한 것으로 시차가 다소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회사는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동반위는 2017년 평가 당시 현대위아(우수→양호), GS건설(우수→보통), 그리고 2018년 평가에선 두산인프라코어(우수→양호), 롯데마트(우수→양호), 현대건설(우수→양호), 한국미니스톱(양호→보통)에 대해 각각 강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동반위는 이참에 체감도 조사 방식 등 평가체제도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50%를 차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와 그렇다치더라도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체감도조사에서 하청기업들이 설문조사에 원청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車정비업계, 보험사 불공정행위 여전 '성토'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 열어 보험사가 지급하는 차 공임비 등 불만

중소 자동차정비업계가 공임비 청구액을 합리적 근거 없이 감액하는 보험사의 행위를 비롯해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여전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열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 주요 건의과제 등을 논의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보험사 등 대기업과 부품유통 및 정비업 등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보험수리시 부품비용 및 공임비 청구액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감액 지급하거나,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비용 지급이 송사 종결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언급됐다.

또 범퍼 수리 등 간단한 정비 시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건의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등록번호판 탈착을 위해 매년 행정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비효율적 규제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제기된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관련법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

김동경 중기중앙회 자동차부품서

비위원회(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불합리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감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공영쇼핑 '애국마케팅' 효과 특출

백두산·독도 등 '역사여행 시리즈' 인기

공영쇼핑이 선보인 '역사여행 시리즈'가 인기다.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역사적 의미를 담은 여행 상품이 주목받는 등 '애국마케팅'이 유행하면서다.

20일 공영쇼핑에 따르면 지난 6월 첫 방송한 '백두산 4박 5일' 여행 패키지는 3회 방송만에 주문액 약 18억원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백두산 여행은 고구려 유적지 관광도 포함돼 그

의미를 더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12일 방송된 '울릉도·독도 2박 3일' 상품은 1회 방송만에 주문액 약 9억원을 달성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3월 문정 방송과는 달리 독도 여행을 선택 관광이 아닌 필수 코스로 포함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공영쇼핑은 역사여행 시리즈의 인기로 힘입어 오는 21일 오후 10시 45분 '중경 임시정부·장가계 4박 5일' 여행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여행에서는 중경(충칭)에 위치



공영쇼핑이 21일 선보일 '중경 임시정부·장가계 4박 5일' 여행 이미지.

한 항일운동의 본거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를 둘러본다. 상하이부터 중경까지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나침반의 길' 박물관도 일정에 포함됐다.

/김승호 기자

경동나비엔, KS-PBI '최고 브랜드' 선정

(프리미엄브랜드지수)

가스보일러·온수매트 부문서 인정

경동나비엔은 '2019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가스보일러 부문과 온수매트 부문'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브랜드 평가 제도다. 2008년부터 매해 10만 표본 이상의 대규모 국내 소비자 조사를 통해 산업별로 최고의 프리미엄 가치를 지닌 브랜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나비엔 메이트는 2016년 신설된 온수매트 부문에서 최초의 수상 브랜드로 선정된 이후 4년 연속 수상했으며, 가스보일러 부문에서도 새롭게 1위에 뽑히며 가치를 인정받았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40여 년간 에너지 효율화와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보일러 산업을 선도해왔다. 특히 가스보일러 보급 초기이던 1988년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보일러를 출시하고 보급하며 국가대표 보일러로

서 우리나라 난방 기술과 트렌드를 주도했다. 콘덴싱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최대 28.3%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의 주변인 질소산화물을 79%까지 줄일 수 있어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로 평가받는다.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2020년부터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법적인 의무 사항이 되기도 했다.

또한, 경동나비엔의 온도 제어 기술력을 집약시킨 나비엔 메이트는 2015년 출시 이후 뛰어난 성능과 스마트한 기능으로 주목받으며 프리미엄 온수매트로 자리매김했다. 매트에서 정확하고 균일한 온도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좌우 온도를 1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분리난방 기능으로 소비자의 쾌적한 수면을 돕는다. 여러 편의 기능과 안전장치로 소비자를 세심하게 배려하기도 했다. 나비엔 메이트 전용 어플로 편리하게 온수매트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숙면할 수 있도록 살균모드, 차일드락, 고온주의 안내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레미콘 환경성적표지 획득... 친환경 입증

유진기업·동양, 4개 레미콘 규격 인증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과 동양이 레미콘 규격에 대해 환경성적표지를 추가로 획득하며 친환경 레미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유진기업은 최근 4개 레미콘 규격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진기업은 2개의 저탄소제품(25-24-150, 25-21-150), 3개의 환경성적(25-27-150, 25-30-150, 25-35-150), 1개의 탄소발자국(25-50-600) 등 총 6개의 레미콘 규격에



유진기업과 동양은 레미콘 규격에 대해 환경성적표지를 추가로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원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기업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김승호 기자

학생 안 몰리는 종교계열 대학들... 신입생 총원 '바닥권'

교육부, 충원을 평가 강화 발표
충원을 대학역량진단 중요지표
신입생·재학생 충원을 낮은 곳 겹쳐
국공립대 대부분 100% 웃돌아

올해 신입생 충원과 지난해 재학생 충원을 지표가 좋지 않은 대학은 주로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나타났다.

'충원율'은 말 그대로 학생을 채우는 수의 비율이다. 최근 교육부가 2021년 진행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학들의 해당 지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대학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장 내년부터 대학입학 가능 자원이 대학 정원 아래로 내려가는 역전

〈정원 내 신입생 하위권 대학들〉

| 대학 | 신입생 충원율 |
|--------|---------|
| 영산선학대 | 10% |
| 경주대 | 20.4% |
| 한려대 | 21.9% |
| 대전신학대 | 28.3% |
| 중앙승가대 | 29.5% |
| 대전가톨릭대 | 30% |
| 수원가톨릭대 | 36.7% |
| 제주국제대 | 41.6% |
| 한국국제대 | 42.6% |
| 부산장신대 | 58% |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향후 공시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변화의 폭을 맞이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을 살펴보면 종교계열 대학이 다수 포함

〈정원 내 재학생 하위권 대학들〉

| 대학 | 재학생 충원율 |
|--------|---------|
| 영산선학대 | 21.5% |
| 대전가톨릭대 | 26.9% |
| 한려대 | 31.4% |
| 중앙승가대 | 32.5% |
| 수원가톨릭대 | 33.3% |
| 경주대 | 40.2% |
| 제주국제대 | 42.8% |
| 광주가톨릭대 | 47.5% |
| 대전신학대 | 47.9% |
| 신경대 | 57.4% |

자료=대학알리미 공시

돼 있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충원율이 낮은 순으로 ▲영산선학대(10.0%) ▲경주대(20.4%) ▲한려대(21.9%) ▲대전신학대(28.3%) ▲중앙승가대(29.5%) ▲대전가톨릭대(30.0%) ▲수원가톨릭대(36.7%) ▲제주국제대(41.6%) ▲한국국제대(42.6%) ▲부산

장신대(58%)등 이었다.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은 ▲영산선학대(21.5%) ▲대전가톨릭대(26.9%) ▲한려대(31.4%) ▲중앙승가대(32.5%) ▲수원가톨릭대(33.3%) ▲경주대(40.2%) ▲제주국제대(42.8%) ▲광주가톨릭대(47.5%) ▲대전신학대(47.9%) ▲신경대(57.4%)로 집계됐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의 최하위권과 대다수가 겹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권은 중앙승가대가 32.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수원가톨릭대(33.3%) ▲신경대(57.4%) ▲가톨릭대 제3캠퍼스(69.1%) ▲안양대 제2캠퍼스(71.2%) ▲인천가톨릭대(73.5%) 순이었다.

강원 및 제주권은 제주국제대가 42.8%로 가장 낮았다. 이어 상지대(82.8%), 강원대 제2캠퍼스(87.0%), 가톨릭관동대(87.6%), 경동대(90.7%), 강릉원주대(94.8%) 순이었

다. 충청권은 대전가톨릭대가 26.9%로 가장 낮았다. 이어 대전신학대(47.9%), 유원대(83.9%), 금강대(88.1%), 청주대(90.8%), 중원대(91.7%) 순이었다.

호남권은 영산선학대가 21.5%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한려대(31.4%), 광주가톨릭대(47.5%), 예원예술대(67.9%), 한일장신대(82.5%), 호남신학대(83.2%) 순이었다. 경상권은 경주대가 40.2%로 가장 낮았다. 이어 대구예술대(63.8%), 김천대(78.9%), 한국국제대(83.4%), 영남신학대(84%), 장신대(84.8%) 순이었다.

국공립대의 경우 대부분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이 100%를 웃도는 가운데 전남대 제2캠퍼스(86.5%), 강원대 제2캠퍼스(87%), 목포해양대(91.6%), 군산대(92.1%), 경남과학기술대(93.3%), 강릉원주대(94.8%) 등이 100%를 밑돌았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삼육대 간호학과는 3박 4일간 자매대학인 일본 야마나시 현립대 간호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을 초청해 학술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삼육대

삼육대 간호학과, 日자매대학 학술교류 이어간다

한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지식을 나누는 '학술 교류'는 갈등이 되어선 안 된다는 대학이 있어 눈길을 끈다. 삼육대 간호학과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자매대학인 일본 야마나시 현립대 간호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을 초청해 학술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양교 간호학과 학생회 주최로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두 차례 진행되는 이

행사는 2013년 시작돼 올해로 7년째 이어오고 있다.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로 올해는 행사 취소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양교 학과장을 중심으로 "이럴 때일수록 만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교류행사에는 야마나시현립대 간호학과 교수와 재학생, 야마나시현립 병원 간호사 등 12명이 참여했다.

손현경 기자

세종대,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내달 2일부터 접수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 지원센터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핵심 추진목표 중 하나인 청년창업육성을 위해 '세종대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회 참가 신청은 내달 2일~22일까지다.

이번 행사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휴학 또는 지역 거주자 ▲ 예비창업자 및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 외국인 학생의 경우 국내 소득발생 가능한 유학생비자 소지자로 1년 이상 체류기간이 남은 자이며, 예비창업자 및 광진구 거주자, 세종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은 우대한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2018학년도 후기 학위 907명 수여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4일 오전 11시부터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858명,

석사 49명이 학위를 받는다.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경희사이버대 개교 이래 2만8538명이 학사학위를 464명이 석사학위를 받게 됐다. /한용수 기자

하반기 신입공채 지원자 평균 학점 3.7

10명 중 4명 취업 희망직무 인턴 전공 분야 자격증 보유자 58%

올해 하반기 신입공채에 지원하는 취업준생들의 졸업 학점은 4.5 만점에 평균 3.78이었고, 10명 중 약 4명은 취업 희망 직무 인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잡코리아가 2019년 하반기 신입공채 지원자 6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직무분야 자격증과 인턴 경험 처럼 직무 연관 스펙을 쌓은 지원자들이 많았다.

전공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58.3%로 가장 많았고, 대외활동 경험자 비율도 45.6%에 달했다. 지원

자의 38.1%는 취업을 희망하는 직무에서 인턴 생활을 한 경력이 있었고, 이들의 인턴 근무 기간은 평균 5개월이었다.

인턴 근무 기업(복수응답)은 규모별로 중소기업(40.0%), 중견기업(29.2%), 대기업(23.8%) 순이었다.

대학 졸업 학점은 4.5 만점에 3.37이었고, 기간이 유효한 토익 점수는 전체의 50.6%가 보유했다. 이외에 영어말하기 점수를 보유한 취업준생은 28.1%, 해외 어학연수 경험자는 25.1%였다.

취준생들의 전형 방식별 선호도를 물었더니, '수시채용전형'(37.1%)이 '정기공채 전형'(31.4%)을 앞섰다.

수시채용을 선호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1년 내 채용이 진행돼 지원 기

회가 늘어날 것 같아서'(54.3%), '공고가 몰리는 공채시즌과 다르게 한 기업 지원에 집중할 수 있어서'(38.9%), '스펙 등 직무 별로 준비해야 할 항목이 명확해서'(26.5%) 순으로 꼽았다.

반대로 정기공채를 선호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해당 시즌에만 자소서 작성하고 면접준비를 하면 되므로'(44.9%), '기존 공채 합격자 자료 등 참고할 자료가 많아서'(39.4%), '공채시즌에 맞춰 스펙을 준비하는 등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37.4%)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하반기 공채 취업준생 10명 중 3명(29.8%)은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유예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용수 기자 hys@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 22일부터 시작

시험지구 교육청, 일선 고등학교 접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2일부터 9월6일까지 12일간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인 경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 후에도 접수기간 중이라면 시험 영역이나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수능 D-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경북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갯바위에서 수험생 부모들이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돼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정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한남대 국내 최초 16명 학생에 '마이크로 디그리' 학위

한남대는 20일 창업, 서비스러닝분야 등 16명의 이수 학생들에게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한 학점당 학위제인 '마이크로 디그리' 학위를 수여했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한남대가 미국 스탠퍼드대, 핀란드 알토대 등 글로벌 명문대를 벤치마킹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일종의 학점당 학위제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졸업대수여하는 학사학위와 별개로 취업 및 창업 시 개인역량 인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이수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은 지난 6월 교내 공모에서 150여명의 지원자가 몰려 6대1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중 22명이 선발돼 7월 1일부터 한 학기 수업을 2주 과정으로 압축해 캠프형 수업으로 진행됐다. /손현경 기자



세상은, 세상에 없던 인재에 주목한다

잠재력을 강력한 경쟁력으로 키워주는 실용교육과
함께 할수록 더 강한 힘을 만드는 공동체 정신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인재의 가능성을 깨우겠습니다



2020학년도 국민대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

접수기간 : 2019. 09. 06 (금) ~ 09. 08 (일) (인터넷접수)

입학상담 : 입학팀 02)910-4123 ~ 29 / 입학사정관팀 02)910-5703 ~ 19

자세한 사항은 QR Code 또는 admission.kookmin.ac.kr 참조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NH농협은행, 건강한 여름나기 제철과일 나눔행사

NH농협은행은 20일 정보보안 안중환사회복지관을 찾아 '건강한 여름나기 위한 제철과일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나완집 부행장을 비롯한 정보보안부 임직원들은 점심식사 배식과 생활관 청소를 진행했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아이스 수박을 기증했다. NH농협은행 나완집 부행장(왼쪽 첫번째)과 정보보안부 임직원들이 20일 안중환사회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농협은행



CJ제일제당 '케이콘 2019 LA' 참가

CJ제일제당이 비비고를 앞세워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한식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CJ제일제당은 16일부터(현지시간) 사흘간 미국 LA에 위치한 스테이플스센터 및 LA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케이콘(KCON) 2019 LA'에 참가해 '테이스트 비비고(Taste bibigo)' 부스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KCON 2019 뉴욕'에 이어 미국 현지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다양한 한식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CJ제일제당



오비맥주, 환경재단에 에코캠퍼스 설립 후원금 전달

오비맥주가 재단법인 환경재단에 '글로벌 에코캠퍼스' 설립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이날 서울 본사에서 전달식을 열고 환경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환경재단은 2002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환경 관련 공익재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할 '에코 리더' 육성을 목표로 '글로벌 에코캠퍼스'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유택 오비맥주 부사장(오른쪽)과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비맥주

롯데제과, '2019 레드닷 어워드' 수상

롯데제과가 빼빼로 캐릭터를 활용한 기획 제품 패키지로 '2019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부터 그 역사를 이어 왔으며 독일 'IF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빼빼로 프렌즈는 초코, 아몬드, 화이트 빼빼로 등 각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성격과 스토리를 담아 의인화한 캐릭터다. 이 캐릭터들을 활용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며 생일 케이크, 플라로이드 사진 등의 아기자기한 이미지 요소들



빼빼로 프렌즈.

을 제품 패키지에 적용했다.

이모티콘 사용이 늘고 캐릭터 산업이 성장하는 등 요즘 디지털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과자 디자인에도 캐릭터로 스토리를 담아 개성 있게 표현해 낸 것이 국제 디자인 상 수상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막바지 휴가철 '교통안전 행동요령'



정금숙 연구원

기고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산과 계곡, 바다로 떠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부른 마음으로 떠난 여행에서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년 여름 60대 할아버지가 어린 외손자를 차량에 태운 사실을 깜빡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외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햇빛이 강한 여름철 야외주차 차량 내부 온도는 섭씨 50도 이상 올라가는 불구덩이나 다름없다. 어린이의 경우 체온 상승 속도가 성인보다 3~5배 빠르기 때문에 잠깐만 방치해도 치명적이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

해선 짧은 시간이라도 어린이 혼자 차안에 남겨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동승자인 어른과 대기 시 차량은 그늘에 주차하고 창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아직도 뒷좌석의 착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안전벨트는 자신뿐 아니라 동승한 가족들을 보호하는 생명벨트나 다름없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앞좌석 동승자에게 충격을 가해 사망률이 7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귀찮음을 핑계로 안전을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직 키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안전벨트 끈이 목과 배를 지나가게 되어 충격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 앞문키를 높여주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만 6세 미

만 영유아의 경우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야 하며 자녀의 체중이 10kg 미만인 경우 후방으로, 10kg 이상인 경우에 전방으로 장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70% 이상은 도로횡단 중 발생한다. 특히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 가려져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다 주행 중이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차량에서 내리면 어디로 될지 모르니 항상 보호자가 손을 잡고 동행해야 하며, 차량의 앞뒤로 뛰어서 길을 건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온 가족이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떠나는 휴가길 아이들의 건강한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 어른들이 먼저 교통 안전수칙을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

/도로교통공단

KEB하나銀, 알바천국과 구인·구직 지원 맞손

미디어윌네트웍스와 업무협약
제휴적금 가입 이벤트 등 협력

KEB하나은행은 '알바천국' 앱을 운용 중인 미디어윌네트웍스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EB하나은행 서초영업본부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알바천국은 2000년 2월에 개설된 대한민국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웹사이트이다. KEB하나은행과 미디어윌네트웍스는 양사 채널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통해 신규순님을 창출하는 한편 구인·구직에 대한 솔루션을 지원하는 장기적 상생 제휴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알바천국 회원을 위한 맞춤 금융상품 이벤트를 지난 19일부터 시행했다. 알바천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체크카드 신규 발급 시 기본 혜택 외에도 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발급 후 첫 결제시에는 3350원의 캐시백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8350원은 아르바이트 시간당 최



KEB하나은행은 미디어윌네트웍스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EB하나은행 서초영업본부에서 협약 체결 후 김기석 KEB하나은행 서초영업본부장(사진 왼쪽)과 공선욱 미디어윌네트웍스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저 시급으로 알바천국 회원을 위한 특별한 캐시백이다.

또한 '제휴적금' 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휴적금은 최대 연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의 제휴적금은 제휴사의 웹사이트에서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1년으로 최대 월 20만원까지 불

입 가능하며 적용금리는 6회차 이상 불입 시 연 2.25%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알바천국은 KEB하나은행의 개인사업자 손님에게 '점프 업(JUMP UP)' 구인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알바천국 사이트 및 KEB하나은행 기업 인터넷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롯데주류 클라우드

'2019 송도맥주축제' 참가

롯데주류의 프리미엄 맥주 '클라우드'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는 '2019 송도맥주축제'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인 '송도맥주축제'는 국내의 다양한 맥주와 함께 댄스, 힙합, 발라드 등 다채로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맥주 축제다.

'클라우드'는 행사장 곳곳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한편 착시현상을 이용해 입체감을 더한 '페이카트 포토존', '클라우드'의 상징인 구름 같은 맥주 거품 위에 맥아로 만든 잉크를 사용해 원하는 문구를 직접 새길 수 있는 '비어아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인용 기자

인사

◆**병무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중훈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장 최규석 ◇서기관 승진 △대변인실 정성숙 △기획조정관실 이아론 △기획조정관실 민수기 △병역자원국 전채천 △입영동원국 배철훈 △사회복무국 손규문

◆**중앙대** △산학협력본부장(부총장급) 김원용 △행정대학원장 및 사회과학대학장 박희봉 △연구처장 이상명 △인권센터장 최윤정

◆**조달청** ◇기술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배건호

부음

▲이창수씨 별세, 이기홍(한국투자증권 해

외투자영업부장)씨 부친상=19일 오후 8시,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 30분

▲차용복씨 별세, 차상광(남자 U-23 축구 대표팀 골키퍼 코치)씨 부친상=19일, 경기도 이천시 이천효자원장례식장 207호(21일 오전 9시30분 205호 이동), 발인 22일 오전 8시

▲나필요 씨 별세, 이상국(전 KBO 사무총장)·상문(전 PEN클럽 회장)·상오(전 전남체육고등학교장) 씨 부친상=20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VIP장례타운, 발인 22일 오전

▲채천기씨 별세, 채갑순·채종갑(자영업)·채종덕(자영업)·채종도(혜성씨) 대표)씨 부친상, 김영수(전 대구신문 편집국장)씨 장인상=20일 오전 9시40분, 영천영락원장례식장 특10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한우 수출 年 11%씩 ↑... 泰·越 등과도 식품협정 추진”

민경천 한우자조금위원장 기자간담회

사전 주문·할인 행사·직거래 장터 등 추석 소비촉진 위한 세가지 행사 마련 수출 활성화 위한 전략·비전도 소개

“최근 3년간 한우 수출량은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한우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할 것이며, 국내 한우 소비 촉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명절 한우 소비촉진 계획 및 한우 수출 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한우자조금은 이날 ‘2019년 추석 명절 우리 한우 소비촉진 행사’ 추진 방향 및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주요 할인 프로그램과 또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는 한우고기 수출 현황 및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임봉재 한우자조금 홍보·유통 부장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이 한우 촉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은 “최근 농가의 높은 입·번식으로 한우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12월 기준 301만 4000두 예상되며, 한우 가격은 2018년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우자조금에 따르면 올해 1~7월 1등급 한우 평균 가격은 1

만7665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0.2% 낮은 수준이다.

다가오는 추석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자조금이 마련한 행사는 세가지다.

첫번째는 한우 선물세트 온라인 판매다. 21일부터 9월 3일까지 한우자조금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한우 유명한 곳 홈페이지에서 브랜드별 선물세트를 사전 주문받아 판매할 예정이다. ‘녹색한우’, ‘안동비프’, ‘하늘소’ 총 3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1+등급의 실속 세트를 5만 원(불고기 1kg + 국거리 500g), 9만 5000 원(등심 1kg + 불고기 500g), 15만 5000 원(등심 1.5kg + 채끝 500g) 3종류로 구성했다.

두번째는 한우고기 할인행사다. 9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한우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 촉진 확대 및 한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협 계통매장, 대형 유통점, 한우협동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소속 업체

와 온라인 농협몰에서 2등급 이상 등심·안심·채끝을 15% 할인된 가격에, 불고기와 국거리는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자세한 판매 업체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인근에서 ‘2019년 추석맞이 청계광장 한우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한우직거래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 형태로 운영된다. 유통 단계를 줄여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한우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우 직거래장터에는 녹색한우, 안동비프, 하늘소 3개 브랜드가 참여해 등심·안심·채끝 등 한우 각 부위를 약 30~4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불고기와 국거리 또한 시중가보다 약 45% 할인된 가격으로 전국 최저가에 만나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특수부위, 갈비, 우족, 사골 등 기타 품목 또한 시중가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한우자조금은 한우 수출 활성화 전략 및 비전을 소개했다.

한우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홍콩, 마카오,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총 4개국이다. 현재는 홍콩에 수출하고 있다. 한우 수출이 가능하려면 국가간 식품위생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한우자조금은 협정 체결을 위해 다른 국가(베트남과 태국)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출량의 대부분은 등심·안심·채끝 등 구이용으로 홍콩에서는 일본의 외규와 더불어 프리미엄 고기로 취급되고 있다. 2018년 한우고기 수출량은 65.2t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1%씩 증가해왔다. 최근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우려가 있었으나, 2019년 7월 기준 한우고기 수출량은 29.2t으로 전년 동기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골든블루, 위스키 4개 제품 가격 전격 인하

오늘 출고분부터 최대 30% 낮춰

골든블루는 오는 21일 출고분부터 위스키 4개 주력 제품의 가격을 전격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주류 전문 기업 골든블루는 오는 21일부터 주력 위스키 4종의 출고가를 최대 30%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로컬 위스키 시장에서 20%가 넘는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골든블루 사피루스(450ml)’는 기존 출고가보다 7.9% 인하된다. 이번 가격 인하 제품 중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10% 가격 인하를 단행한 ‘팬텀 디 오리지널’도 1년 여만에 추가로 4.2% 가격을 낮춘다. 또 출시 1년 미만 제품인 ‘팬텀 디 오리지널 17’은 기존 출고가보다 8.7% 낮게 책정했다.



골든블루 사피루스(왼쪽부터), 팬텀 디 오리지널, 팬텀 디 오리지널 17, 팬텀 더 화이트. /골든블루

골든블루는 이번 위스키 가격 인하를 통해 위스키 시장 전반의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국내판매 1등 위스키를 포함한 총 4개 제품의 가격 인하는 공개적이고 차별없는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주류 관련 도·소매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최종 소

비자들에게는 위스키 소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해 시장에서 강력한 활력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성적 거래 차단을 위해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류 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골든블루 대표는 “도종 위스키 기업으로서 감소하고 있는 시장 침체를 타개할 근본적인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다. 주력 제품의 선도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 상생을 실천하고 건전한 유통구조 정착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나아가 국내 위스키 시장의 규모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시도 및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

롯데마트,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50% ↑

건강기능식 추석세트 인기

추석 선물세트 전체 매출 가운데 건강 기능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롯데마트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3주간 2019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실적을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50.2%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과일 (147.7%)과 건강 기능식 (169.4%) 선물세트가 전체 신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기능식 선물세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카테고리 2017년 추석에는 39.1%, 2018년에는 49.1%의 높은 신장을 기록했다.

건강 기능식이 포함되어 있는 퍼스널 케어 부문에서의 비중도 2017년 14%에서 2018년에는 29.2%로 두 배 이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는 홍삼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 기능식 선물세트의 품목을 작년 추석 대비 20% 가량 늘려 품질 높은 상품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다.

대표 상품은 롯데마트 단독 제품인 ‘정관장 홍삼원기(氣) (50ml×30포)’로 롯데, 비씨, 신한 등 11대 카드 적용 시 3만6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해당 상



헬스원 석류와 콜라겐. /롯데마트

품은 6년근 홍삼농축액에 대추, 생강, 구기자, 영지버섯 농축액을 한 포에 담아 편리하게 음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헬스원에서 방영된 이후 인기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새싹보리’로 만든 착즙분말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롯데마트 단독 기획 상품인 ‘유기농 새싹보리 착즙분말(새싹보리2병)’의 가격은 4만2600원이다.

최근 이너 뷰티가 각광을 받는 것을 고려해 석류와 콜라겐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헬스원 석류와 콜라겐(50ml×30포)’은 여성건강에 좋은 터키산 석류를 사용했으며, 석류와 피부에 좋은 콜라겐, 히알루론산을 한 포에 담은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다. /신원선 기자

오설록, 독립 법인 출범... “전문성·효율성 제고”



프리미엄티(Tea) 브랜드 오설록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다. ㈜오설록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올해 9월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되고 10월 1일부터 독립적인 경영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오설록의 독립법인 출범은 그간 ㈜아모레퍼시픽의 사업부로 운영돼 왔던 오설록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난 40년간 쌓아온 명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오설록은 지난 1979년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서성한 선대회장이 제주도 한라산 남서쪽 도순 지역의 황무지를 개간하며 시작된 브랜드다. 현재는 100만 평 규모의 비옥한 녹차밭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 대표 녹차 생산지이자 관광 명소로 발돋움했다.

제주 햇차를 비롯한 최고급 마스터즈 티 라인부터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블렌딩 티 라인까지 갖춘 오설록은 티 뮤지엄 및 티 하우스, 백화점, 면세점, 직영몰 및 주요 입점점을 통해 고객과 만나고 있다. 향후 ㈜오설록은 독립된 조직에서 중장기 관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 영역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고유의 차 문화를 함께 하는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전 세계 고객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설록의 서혁제 대표이사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철저한 책임 경영을 통해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명차 브랜드의 입지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동원F&B

추석선물세트 200여종 선보

동원F&B가 추석을 맞아 1등 식품들을 담은 국가대표 선물세트 ‘동원 추석 선물세트’ 200여종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동원 추석선물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1등 제품들은 각각 동원참치, 리첸, 양반김이다. 동원 선물세트는 지난해 기준 누적 판매량 2억세트를 돌파한 대한민국 대표 식품선물세트로, 1984년 탄생한 동원 선물세트는 출시 첫 해인 1984년 추석에만 30만세트 이상이 판매되며 선물세트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이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해 지난 2006년 누적 판매량 1억 세트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2억세트를 돌파했다.

특히 이번 동원 추석선물세트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통해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더했다. /박인용 기자

유통 단신

오리온

佛 디저트 ‘퐁당 쇼콜라’

오리온은 프랑 스디저트 ‘퐁당 쇼콜라’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퐁당 쇼콜라는 ‘초콜릿이 녹아 내린다’는 의미를 가진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다. 폭신한 스펀지 케이크 속에 부드러운 생크림과 진한 풍미의 초콜릿 크림을 채워 넣어 부드러움과 촉촉한 식감을 구현해냈다. /박인용 기자



세븐일레븐

오리지널·흑당 에그타르트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에그타르트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이트시럽을 넣은 ‘오리지널 맛’과 최근 유행하는 흑당시럽을 넣은 ‘흑당맛’ 등 총 2종으로 구성됐다. /김민서 기자



줄기세포로 인공육류 생산... 서울대교수의 푸드테크 도전

바이오벤처 '노아' 10월 출범

국내 최초 배양육 생산 제조사
창업신청 3일 만에 승인허가

창업자 박용호 교수

"다음 세대 위한 노아의 방주 될 것"



박용호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배양육'을 만드는 회사가 다음 달 문을 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박용호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이끄는 바이오벤처 '노아(NoAH)'가 최근 서울대학교 내 창업 허가를 받았다. 노아는 오는 10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배양육은 소와 돼지 등 가축의 근육 줄기세포를 추출해 외부에서 고기 조직으로 키워낸 인공 육류다. 미국에선 '뱀

피스 미트' 등의 스타트업이 배양육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국내에서 배양육 생산을 내세운 기업은 노아가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노아는 서울대 내 바이오벤처로 창업 신청을 한지 3일만에 승인허가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3~6개월 걸리는 승인 과정을 이례적으로 단축한 것이다. 기반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기업을 이끄는 이끄는 박 교수는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을 거쳐으며, 현재 UN 산하기구인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ODEX)가 구성한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수의미생물학 분야에서 눈에 띄는 연구 업적을 쌓아왔고, 이미 2만여개 동물 유래 균주를 확보한 상태다. 기업의 기반이 될 기술 개발에는 박 교수의 제자와 동료, 후배들로 이뤄진 쟁쟁한 연구진이 참여한다.

노아는 우선 동물용 유산균을 활용해 슈퍼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항생제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연구에 참여한 박건택 인제대학교 교수는 "이미 100여종의 동물용 유산균을 확보했고, 항생제 내성균을 대상으로 젓갈 유래 유산균의 실험 결과 슈퍼박테리아의 항균력이 탁월한 항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술은 사업 초기 노아의 캐시

카우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용호 교수는 "동물용 유산균을 활용해 항생제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동물 뿐 아니라 인체에도 활용된 미생물을 발굴하고 있다"며 "노아의 설립 후 1~2년 가량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생제를 인체에 전달하는 수송체에 변화를 줘 항생제 효과를 높이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미시시피주립대 서근석 교수는 "모든 미생물 생존에 필요한 화학물 수송체를 항생제와 결합해 기존 항생제의 항균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 신항생물질 개발이 가능하며, 신화학물질추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세포배양액을 사용해 자가면역질환 극복에도 나선다. 서 교수는 "부작

용과 치료 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호 교수는 "앞으로 5~10년 안에 동물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해 고기 구성 주요 성분을 합성하고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 배양육을 생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노아는 초고령 사회에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꿈꾼다.

박 교수는 "NoAH는 'Niche of Animal Health'의 약자로,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헬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란 뜻"이라며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연구 결과와 독자적인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이끌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제넥신-툐젠, 합병 무산... "협력은 지속"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발목

유전자 가위와 면역항암제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넥신과 토크젠의 합병이 결국 무산됐다. 바이오 업종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발목을 잡았다.

제넥신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합병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토크젠과의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제넥신과 토크젠이 합병계약 승인 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접수한 결과, 제넥신과 토크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각각 1300억원과 5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에 따르면 제넥신 주식매수청구주식 수가 보통주 344만2486주, 우선주 146만5035주이고 토크젠 주식매수청구주식 수는 보통주 151만3134주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측에 적정가에 매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바이오 업종 침체 영향으로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

사가격을 밑돌면서 많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제넥신은 지난 6월 코넥스에 상장된 토크젠을 흡수합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넥신은 면역항암, 유전자백신 분야에서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이고, 토크젠은 제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유전자 가위 업체다. 두 기업의 만남으로 혁신 유전자치료제 탄생할 것이라 업계의 기대도 컸다.

제넥신과 토크젠은 합병이 무산됐지만 지속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미 합병 시도 전부터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관계를 수립한 상태다. 제넥신이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하이루킨'과 토크젠의 유전자 교정 기술인 '하이루킨'과 토크젠의 유전자 교정 기술인 '하이루킨'을 융합해 차세대 면역항암제인 카티(CAR-T) 세포치료제를 만들 계획이다.

제넥신 관계자는 "하이루킨과 카티(CAR-T)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존 CAR-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동종유래(Allogeneic) CAR-T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할 것"이라며 "2020년 하반기에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이경규의 꼬꼬면 신화, '이젠 치킨으로!'

돈치킨 마라맛 '허니마라치킨' 출시
얼얼한 후+달콤한 맛으로 호불호 ↓
이경규, 직접 레시피 개발에 작명도

"이번에 선보이는 허니마라치킨은 얼얼한 마라맛과 함께 꿀의 달콤함이 포인트입니다. 요리가 바쁜 일상 속 저의 힘이 됐듯, 이경규 치킨이 많은 분들의 일상에 힘이 되는 메뉴가 되길 바랍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는 구운 치킨 브랜드 돈치킨이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돈치킨은 이날 이경규 치킨'을 선보였다. 기존의 국내 250개, 해외 51개인 가맹점 및 매장을 2025년까지 국내 500개, 해외 5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해외 진출의 경우 돈치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아직 진출하지 않은 글로벌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돈치킨과 이경규가 손잡고 함께 선보인 일명 '이경규 치킨'은 허가 얼얼해지는 매운 맛인 '마라'를 기본으로 달콤한 맛을 더한 '허니마라치킨'이다. '마라'는 매운 맛을 내는 중국 사천 지방의 향신료로 저릴 마(麻)와 매울 탈(辣)을 쓰는 만큼 허가 마비될 정도로 맵고 얼얼



방송인 이경규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돈치킨 X 이경규 신메뉴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신메뉴 '허니마라치킨'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한 맛을 의미한다. 돈치킨의 '허니마라치킨'은 화자오와 산초를 사용해 얼얼한 매운 맛을 살리면서 100% 국내산 벌꿀로 허를 달래주는 달콤한 맛을 더했다.

돈치킨의 주주이기도 한 이경규는 본인의 요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번 신메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6개월에 걸친 개발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마라맛이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

돈치킨은 이번 허니마라치킨 론칭을 기념하며 사각 피자 증정 이벤트를 함

께 실시하고 월간 10만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돈치킨은 '돈키호테의 열정'을 담아 '돈치킨'이라고 이름 지었다. 100% 국내산 냉장육 닭고기를 사용하면서 해썬(HACCP) 인증을 획득한 최첨단 생산·가공 공장을 통해 매일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했다. 본사를 포함한 총 10개의 전국 자사 체인망을 통해 신선한 식자재를 배송하는 한편 돈치킨만의 특별한 염치 방식을 채용해 부드럽고 쫄깃하면서 살 속까지 깊은 맛을 낸다. /박인용 기자 parkju7854@

광동제약 소비자 및 '옥수수가족환경캠프' 성료

광동제약은 제12회 옥수수가족환경캠프를 최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광동제약이 주최하고 (사)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친환경 농업과 농촌 체험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마을'에서 열렸다. 광동제약은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옥수수' 혹은 '광동 옥수수수염차'와 관련된 사연을 접수해 사전 심사를 거쳐 총 100여명의 가족을 초청했다.

참가자들은 농가에서 옥수수 재배 과정과 건강에 이로운 점, 좋은 옥수수 선별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수확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회사측은 이 밖에도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손두부 만들



광동제약이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마을에서 진행한 '제12회 옥수수가족환경캠프'에 참가한 가족이 옥수수를 직접 수확하고 있다.

기와 환경 골든벨 퀴즈, 에코백 만들기, 자연 속 초록보물 찾기 등을 마련했으며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영화제'도 개최했다. /이세경 기자

JW 개발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 유럽 진출

JW가 개발한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가 유럽에서 정식 출시됐다.

JW홀딩스 자회사인 JW생명과학은 수액제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박스터가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 피노멜(국내 제품명 위너프)을 유럽 시장에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피노멜은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지질 성분인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이상적으로 배합한 3세대 영양수액으로, 현재 출시된 3세대 영양수액 중 오메가3 성분 함량이 가장 높고 비타민E가 포함되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 제품은 정제어유(20%), 정제대두유(30%), 올리브유(25%), 코코넛오일(25%) 등 4가지 지질 성분과 포도당,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타 제품보다 33% 더 높은 함량의 정제어유를 함유하고 있어 오메가3지방산의 함유량이 더 많다.

JW생명과학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 전자동화 생산라인을 증설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유럽연합 우수약품제조관리기준(EU-GMP)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글로벌 진출을 준비해왔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 29일 피부건강강좌

이대서울병원이 오는 29일 오후 3시 지하2층 대강당에서 '건강하고 맑은 피부'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대서울병원 피부과 이민영 교수(사진)가 강의하는 이번 건강강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석자 모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동서식품, 사회복지관 아이들과 여름 나들이

맥심 커뮤니티 회원들과 봉사활동 진행

동서식품은 자사 커피 브랜드인 '맥심'의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봉사활동인 '맥심 사랑나눔 여행'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맥심 사랑나눔 여행'은 동서식품 임직원들과 '맥심' 소비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그녀들의 커피 이야기' 회원들이 매년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되는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동서식품 임직원과 커뮤니티 회원들은 아이들을 위한 포스트 시리얼과 오레오 등 다양한 간식을 복지관에 전달하고, 복지관 아동 20여명과 잡살 및



동서식품이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아이들과 '맥심 사랑나눔 여행'을 진행했다. /동서식품

데월드 아쿠아리움을 견학하는 등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 박선민 씨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사회와의 소외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대형마트 역차별?



기지 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주요 대형마트가 2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위기론이 대두된 가운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어온 유통산업발전법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 Market/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대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안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출점 제한과 영업일수 규제, 의무휴업 등이

다. 대형마트는 당장 추석연휴인 9월 둘째주가 '대목'임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를 뒤로하고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인근 전통시장 매출도 같이 줄어들었다.

실제 지난 2017년과 2018년

한국유통학회 등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샘플조사를 벌인 결과를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규제로 쉬는 날 주변 반경 3km 이내의 주변 상권의 소비증가율은 규제 초기인 2013년 36.9% 증가했으나 2016년엔 6.5%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면 소상공인이 살아날 것이라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상생'을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현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때 그때 온라인 주문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1·2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대형마트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규제의 시각 지대에서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준대형 활인마트(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법 규제 대상이 유통 대기업으로 한정되는 게 오히려 역차별은 아닌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때다.

/tree6834@metroseoul.co.kr

CJ프레시웨이 골프장 신메뉴 경진대회 개최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9일 본사 조리사카데미에서 골프장 소속 전문 조리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신메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개수는 500개를 넘어섰다. 10년 만에 약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대형마트 점포 수와 비슷할 정도로 많아졌다. 그만큼 골프장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경기 중에 맞

보는 요리와 식품(F&B) 서비스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골프장에서 식음료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는 매년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메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 중 하나인 전골류와 단품 요리 등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맛과 플레이

팅, 점포별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부문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1명씩 총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전골류 부문에서는 사홍 솔트베이CC 김학기 셰프의 '묵은지 왕갈비 맑은탕', 단품 요리 부문은 비발디파트CC 정찬호 셰프의 '왕꼬막도토리묵 무침&애호박부추전'이 각각 최우수상으로 뽑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 개발된 총 30여가지의 요리는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국 골프장에서 가을 시즌 동안 선보일 예정이다.

/박인웅 기자

오늘의 운세 8월 21일(음 7월 2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뒤라. 48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 온다. 60년생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휴식. 72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을 편하게. 84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37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49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거래가 순조롭다. 61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가 적다. 73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85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38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서 살아야 복이 온다. 50년생 투자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라. 62년생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한 하루. 74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무사히 달성. 86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39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51년생 중요한 일은 비밀스럽게. 63년생 내키지 않아도 기어만 한다. 75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87년생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만 그래도 인내를.



40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도장은 내일 찍어라. 52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64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긴다. 76년생 성실하게 쌓은 능력을 인정받고 축하 받을 운. 88년생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



41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53년생 손푼에 뚫던 배가 뜻이 순조로운 하루. 65년생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좋지 않다. 77년생 돌아갈 수 없어서 어제가 더 그립다. 89년생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마라.



42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 54년생 하룻강이치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담비는 격. 66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ผล. 78년생 일이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우려. 90년생 남을 위한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된다.



43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55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67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을 빛을 발하는 날. 79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구가 귀인이다. 91년생 남들보다 앞서서 가는 것이 불행.



44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없는 날. 56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벽만 하루. 68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80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하다. 92년생 시작한 일에 기대가 많으나 실리는 별도 없다.



45년생 아랫사람과의 불화가 의심되니 주의. 57년생 기회가 주어지지 망설이지 말고 놓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 69년생 급제를 조심. 81년생 확실한 거절은 상대에게도 도움 된다. 93년생 같은 세라도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



46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과 양보를 해야. 58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7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좌절안식. 82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이 되니 견디야 한다. 94년생 산책을 하며 머리를 식혀보라.



47년생 지나가 내 노력에 동참하지 않아 힘들 것. 59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71년생 강을 건넜어도 배는 소중히 간직. 83년생 이성과 가벼운 만남을 경계. 95년생 운이 나쁘니 무관심이 오히려 좋다.



김상회의四季

기도원력

형체를 믿든 안 믿든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 있다. 아무리 모른 척하려 해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기 마음까지 속일 수는 없다.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해서 짓는 불선업의 과보가 반드시 그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다 치자. 그러면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이 어땠겠는가. 아무리 연좌제가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남은 가족들은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가족으로서 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평생 트라우마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세간살이는 번뇌 없이 사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불보살들의 원력이 된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장보살본원경에서 "미래에 세상이 다할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죄업으로 인해 지옥고를 받고 있는 유주무주 고탈들은 물론 고통을 받는 모든 육도중생들을 방편을 베풀어 다 해탈시키고 나서야 성도를 이루겠다"고 서원하였다. 우리 중생들은 지장보살님만큼의 원력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힘닿는껏 서원을 세우고 마음과 행을 닦으며 발원을 세운다면 분명 그 사람의 삶은 편안해진다. 과거 생애 지은 죄의 업장으로 장애와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원력으로 나투신 지장보살님의 상을 보거나 그리거나 지장보살의 존호를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되게 하겠다는 지장보살의 크나큰 원력이시다. 원력을 새기며 필자는 삼 년 전에 꿈에 현몽하신 나투신 그 모습대로 지장보살님을 서오릉월광사 마당에 석불로 조성하였다. 원력의 성취는 이뤄질 것이라 굳게 믿으며 모처럼 시원스럽게 내려주는 빗줄기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기도의 원력을 발원해 본다. 작은 믿음이 쌓여 큰 공덕을 이루는 법이니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상회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Sudoku grid 1

Sudoku grid 2

Sudoku grid 3

문제 제공 = 보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6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70호

늦캉스·추캉스족 모여라... 힐링 가득 담은 호텔패키지

(늦은 바캉스)

(추석 바캉스)

인터컨티넨탈코엑스 몰캉스 혜택
위호텔제주 사우나·룸업그레이드
켄싱턴 호텔 한강 크루즈 패키지

에년보다 빨라진 추석으로 인해 호텔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여름 성수기를 피해 바캉스를 즐기려는 '늦캉스(늦은 바캉스)족'과 추석·가을을 일찌감치 준비하는 '추캉스족'까지 동시 공략하고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특급호텔들은 추석 연휴 한정 패키지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대부분 추석 기간(9월12일~14일)을 포함해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특별한 혜택을 포함하거나 여유와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가을 정취를 담은 패키지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유권·조식권... 풍성한 혜택

콘래드 호텔,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추석 패키지에 혜택을 추가해 선보인다.

콘래드 호텔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객실 예약 고객에게 9만 원 상당의 제스트 뷔페 2인 무료 조식 바우처를 증정한다.



또한, 선착순 고객 20명에게 아쿠아 플라넷 63이용권과 63아트이용권이 포함된 '63종합권'을 증정한다.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몰캉스(쇼핑몰+바캉스)'를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호텔과 연결된 파르나스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해당 상품권은 호텔 내 '그랜드 키친'의 2인 조식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코엑스내

아쿠아리움 입장권(5만 6000원 상당) 2매를 혜택으로 제공한다. 또, 호텔 1층에 위치한 뷔페 레스토랑 브레서리에서 2인 조식으로 즐길 수 있다.

양 호텔의 패키지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바쁜 명절 'NO'...추석엔 힐링을

호텔 추석 패키지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힐링'이다. 북적이는 명절 분위기를

를 벗어나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고객들을 겨냥했다.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연박 할인 등이 포함돼 느긋한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명동의 '다(多)드림' 패키지와 위(WE) 호텔 제주의 '행복한가득' 추석 패키지는 레이트 체크인(오후 2시)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이비스 명동의 경우, 9월 8일부터 19일까지 한정 기간동안 패키지를 선보이며, 얼리 체크인(오후 12시), 세미 노천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

위 호텔 제주의 '행복한가득' 추석 패키지는 9월 11일~15일 운영되며 연박 혜택이 풍성하다. 2연박 시 CGV 영화예매권 2매를 제공하고, 3연박 시 스위트룸 무료 업그레이드 1회가 제공된다.

이밖에 천연화산암반수 사우나 무료 이용, 메디필 로얄로즈 모델링 팩 1세트 등이 포함됐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는 9월 12일~15일까지 와이너리 투어가 포함된 '문라이트 와이너리 패키지'를 선보

인다. 제주의 멋드러진 풍경을 배경으로 11종의 와인을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2박 이상 이용 시 사우나 2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 가을은 '늦캉스'...정취 즐겨볼까
호텔들은 늦캉스족을 위한 여름 패키지의 기간을 확대하거나, 추석 한정 패키지와 가을 패키지를 함께 내놓는 전략을 펴고 있다.

오라카이 청계산 호텔은 뒤늦은 휴가를 계획하는 '늦캉스족'을 위해 9월 20일까지 여름 패키지를 선보인다. 청계산을 보며 즐길 수 있는 수영장과 루프탑 트랙 이용을 포함하는 한편 2, 3, 4인 등 인원별 맞춤형 패키지를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전국 주요 명소에 위치한 켄싱턴 호텔은 추석 패키지와 함께 가을 패키지를 내놨다. 여의도, 평창, 설악, 남원에 춘, 부산 등 5개 지점은 9월 9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전통·미식·힐링을 콘셉트로 추석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여의도 지점에서는 가을을 겨냥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리버선셋 크루즈 패키지'를 지난 19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한강 유람선인 이랜드 크루즈 승선권(2인)과 와인 등이 포함됐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편의점서 납부한다

GS25 통합하이패스 서비스 제공

편의점 GS25가 하이패스 토털(Total) 서비스를 제공하며, 완전한 모바일리티(자동차 등의 이동수단)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GS리테일은 20일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계 최초로 오는 23일부터 전국 1만3000여 개의 GS25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GS25는 이번 미납 통행료 조회, 납부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존에 선보인 하이패스 전자카드 충전서비스,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 판매와 더불어 통합 하이패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GS리테일과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고속도로 영업소와



휴게소 등에서 제공하는 하이패스 서비스를 전국 GS25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 고객 편의성은 높아지고, 매년 증가 추세인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건수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훈 GS리테일 생활서비스 부문장은 "미납 통행료를 줄여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가사노동 줄여주는 생활밀접 가전 '쑹쑹'

전자랜드 에어프라이어 566% ↑
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 등 인기

전자랜드는 생활 밀접형 가전제품인 에어프라이어,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의류관리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랜드의 에어프라이어 판매량은 2018년 1월 판매 개시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8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255%, 2018년 하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에는 143% 신장했다. 올해 7월까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6%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판매량

만 해도 2018년 전체 판매량보다 약 90% 많다.

식기세척기는 올해 7월까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0%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판매량보다 약 16% 많은 수준이다.

전기레인지와 의류관리기도 인기다. 올해 7월까지 전기레인지와 의류관리기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 147% 높다.

전자랜드는 '워라밸' 시대를 맞아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고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가전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서 기자

CJ ENM 오쇼핑, K팝 타고 美에 K-패션 알러

패션 PB '씨이엔', 케이콘 참가
미국 밀레니얼·Z세대 공략

CJ ENM 오쇼핑부문이 단독 패션 브랜드 '씨이엔(Ce&)'을 앞세워 미국 밀레니얼과 Z세대에 K-패션을 알렸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지난 16~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케이콘(KCON) 2019 LA'에 참가해 '씨이엔 인 로스앤젤레스'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 운영 3일간 총 2만 4000여명의 팬들이 방문해 K-패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씨이엔은 LA지역 K-팝 팬들이 베지나 포토카드 등으로 의류와 가방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점에 착안해 자신이 구매한 티셔츠에 K-팝 아티스트의 이름과 노래가사 등을 핸드젯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이벤트를 열었다. 덕분에 행사 기간 동안 '씨이엔 레터링 실켓 티셔츠'는 약 5000장이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열린 '케이콘 LA 2018' 때보다 약 30% 늘어난 수치다.

CJ ENM 오쇼핑부문 씨이엔 담당자

는 "씨이엔을 글로벌 무대에 선보인 지 1년 만에 브랜드에 대한 해외 팬들의 관심과 호감이 확대됐음을 체감했다. 특히 이번 씨이엔 부스를 통해 K-패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해외 팬들이 많아 고무적"이라며 "씨이엔을 국내 유통채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패션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CJ ENM 오쇼핑부문은 지난 2009년 패션 편집숍 '셀럽샵'을 열고 자체 브랜드 '셀럽샵 에디션'과 '씨이엔'을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클렌징부터 보습까지 '약산성'으로 순하게~

아모레퍼시픽 순플러스
'5.5 밸런싱 라인' 3종

아모레퍼시픽의 더마 브랜드 순플러스(SOON+)는 '5.5 밸런싱 라인'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5.5 밸런싱 라인'은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pH 5.5의 약산성으로 피부 균형을 맞춰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약산성 포몰라의 클렌징폼, 스킨, 로션 3종으로 구성됐다.

'순플러스 5.5 밸런싱 워터'는 피부 장벽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라마이드를 함유해 촉촉하게 피부 결을 정리할 수 있다. '순플러스 5.5 밸런싱 에멀전'은 스쿠알



란과 징크를 더해 수분 증발을 막고 보호막을 형성해 촉촉함을 더한다.

'순플러스 5.5 클렌징폼'은 쫄쫄하면서 풍성한 거품으로 약산성 저자극 세안을 개운하게 할 수 있다.

순플러스 5.5 밸런싱 라인 제품은 공통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워터'를 함유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기술력으로 검증된 식물성 락토바실러스 발효용해물이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장벽을 강화하는 효능을 갖고 있으며, 피부 보습 효과가 탁월하다. 또 건조로 인한 피부 손상을 케어하는 '알란토인'과 자극 받은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는 '레드베리펩타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보습, 진정,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김민서 기자

걱정은 접어두고 행복은 펼치세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드리는
BNK금융그룹이 있으니까

우산을 함께 쓸
친구들이 있으니까

BNK금융그룹과 함께하면
행복이 펼쳐집니다!

BNK 우산 DREAM 캠페인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전남 교육 명예대사인 연예인 최수종씨가 전라남도교육청에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강사로 나서 강의로 전액을 기부했다.

최수종, 전남 학생들에 재능 기부

‘엄마·아빠는 하나뿐인 내편’ 강의

2016년부터 ‘희망 전남 교육 명예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씨는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 ‘2019 찾아가는 학부모 인성 교육’에 출강해 ‘엄마 아빠는 하나뿐인 내편’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2011년부터 (사)전남영상위원회 위

원장을 맡고 있는 최씨는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연기 캠프’를 통해 전남 학생들의 연기와 영상 제작 지도 등에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내년에는 졸업생들과 함께 10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최씨는 “앞으로도 자녀 인성 교육과 부부힐링 등에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인천 시내버스노선 ‘지선’ 위주로 바꾼다

한정면허 17개 노선 폐지

인천시가 20일 인천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인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및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노선개편 용역은 인천시가 지난 7월에 발주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외 3개사가 내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빅데이터에 근거한 노선개편안 마련 등 주요 과업을 수행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굴곡노선과 장거리 노선을 줄이고, 현재 ‘간선’ 위주의 노선운영에서 철도, 병원, 상권, 학교 등 시민들의 동선과 가까운 ‘지선’ 위주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 시내버스 노선운영체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주재하며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있다. /인천시

노선체계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또한, 버스노선 효율화 정책 수립에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던 한정면허 17개 노선을 폐지해 재정부담도 줄이고, 효율적인 버스행정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에 치과비 지원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10만원

전남 무안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아동들의 의료비지원 사업을 위해 18곳의 치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치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치아 흡메우기, 불소도포의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발치, 신경

치료, 레진치료, 보철의 치료진료 등으로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등학교 졸업까지 매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방식은 저소득층 아동이 원하는 치과 병·의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나면 무안군 보건소에서 치과 병·의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광주형 일자리’ 막 올랐다 年 10만대 경형 SUV 생산

경형 SUV 생산 새로운 실험
현대자동차로서 위탁 생산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중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이 생산하는 경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어떤 차량이고, 향후 시장성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인 2021년부터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SUV를 현대자동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세단과 SUV 모두 승용차로 구분된다. 승용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다. 경형은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다.

소형은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다. 현재 국내 경차 시장은 기아자동차와 한국GM이 양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형 SUV는 생산되지 않고 세단(모닝, 레이 등)만 생산된다. 그런 만큼 경형 SUV를 생산한다는 광



광주 광산구 그린카진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발기인 총회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앞줄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새로운 실험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20일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의 경형 SUV 생산체제는 자동차 업계에서 새로운 실험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국내 수요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자동차 생산체제를 운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SUV 판매량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SUV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

국내 완성차 5개사의 SUV 판매량은 2012년 25만6923대에서 2018년 51만 9886대로 2배 이상 성장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소형 SUV인 스포티지, 쏘울, 셀토스(올해 7월 출시)를 생산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스포티지 연간 생산량은 2016년 20만5363대, 2017년 20만1100대, 2018년 18만3908대로 줄어드는 추세다.

쏘울 연간 생산량은 2016년 17만 2184대, 2017년 16만5508대, 2018년 15만6716대로 감소 추세다.

현대자동차 측은 SUV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경형 SUV를 개발해 세단 중심의 경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담양 명옥헌 원림 ‘백일홍 만개’

폭염이 한풀 꺾인 20일 담양 고서면에 위치한 명승 제58호 명옥헌 원림에 백일홍이 활짝 피어있다.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지역 지정

용도변경 따른 소요기간 4개월 단축
부지 매입비 31억 고흥군 예산 반영

전남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가 ‘스마트농업 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부지에 데이터센터, 지역 농업인 음식점, 농수산물 가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청년보육센터, 실증단지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농림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4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 매입을 위한

소유권 이전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부지 매입비 31억 원을 2019년 고흥군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 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임대법인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7월 중 농식품부에 부지매각 처분 승인을 요청한 후 8월 7일 농식품부로부터 매각 처분계획 승인을 받았다.

/전남=양수영 기자

인천공항공사, 노인복지 향상 아이디어 공모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고령화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노인 복지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9월 9일 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

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 “인천공항과 사랑을 잇다. 노인복지를 찾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후원하고 한국노

인복지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의 공모분야는 치매 증상별 대분류에 따른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으로서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오늘의 날씨

8월 21일 (수)
음력: 7월 21일

수도권 날씨
31 ~ 2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52 | 해질 / 19:18

연천 21/30
동두천 21/29
가평 20/30
파주 24/33
서울 24/31
인천 25/29
양평 22/30
수원 24/30
용인 24/30
평택 23/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VR로 복원한 돈의문 모습. /서울시

‘강제철거’ 돈의문, VR로 생생하게 복원

104년 만에 시민 품으로

1915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철거된 ‘돈의문’이 디지털 기술로 복원돼 104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서울시는 ‘돈의문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로 복원한 돈의문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명 ‘서대문’이라고도 불리는 ‘돈의문’은 지난 1396년 만들어졌다. 1915년 일제강점기에 도로확장을 이유로 철거됐다. 조선시대 한양도성 서대문 중서쪽에 세워진 문이었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돈의문은 교통난과 보상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물 복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첨단 기술인 AR과 VR을 활용, 돈의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돈의문 AR 체험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받아 정동사거리 주변에서 실행하면 100년 전 돈의문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다.

AR 앱은 시간대에 따라 4가지 이상의 그래픽으로 구현된다. 정동사거리에는 돈의문 역사, 복원 과정, AR로 재현한 돈의문 모습을 보여주는 키오스크가 설치됐다.

시는 문화재청 자문위원인 김양직 명지대 교수, 단청 전문가 정병국 동국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시각 특수효과 전문가 등 참여로 복원 작업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에 3층 규모의 체험관을 마련해 돈의문 축소모형을 전시하고 VR존을 운영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치매 환자 6만명 요양시설 정원 고작 1만명

치매 외래진료 고령자
3년간 1만3477명 증가

노인요양시설 총 208개소
공공 노인시설 16.3% 그쳐

서울에서 치매로 외래 진료를 받은 노인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비율이 5%로 낮고 노인 인구 대비 공공 요양시설 수가 적어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치매 외래 실수진자(통원 치료를 받은 사람) 수는 2017년 기준 총 6만6036명으로 집계됐다. 외래 서비스를 이용한 치매노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3958명)였다. 이어 은평구(3733명), 강서구(3677명) 순이었다. 반면 중구(1112명), 종로구(1233명), 금천구(1476명)는 치매 외래 실수진자 수가 적었다.

서울에서 치매로 외래진료를 받은 고령자는 201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는 추세다. 2014년 5만2559명, 2015년 5만7940명, 2016년 6만1142명에서 2017년 6만6036명으로 3년간 1만3477명 증가했다.

치매환자는 늘어나는 데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지역사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인 치매안심센터는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노인요양 시설은 수요 대비 시설 수가 적었다.

서울연구원이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2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5%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비율인 30.6%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손창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가족을 포함한 보호자가 있어 센터를 이용하기 쉬운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독거 노인, 자녀가 없는 어르신 등 사회적 지지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치매 노인을 발굴해 치매 관리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시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은 총 208개소(정원 1만2671명)다. 이중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34개소(정원 2877명)로 전체의 16.3%에 그친다. 노인요양시설 1개소당 서울시 치매노인 수는 평균 325.32명(2016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대비 요양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마포구 등이었다.

손창우 연구위원은 “노인요양시설은 주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산책이 가능한 오픈스페이스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치구의 외곽 지역을 활용해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연구위원은 “특히 공공시설의 요구가 높은 종로구와 중구는 도심권역 특성상 주변 지역을 활용해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안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고덕강일지구 642세대 공공분양

SH공사, 내달 초 청약접수 시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첫 번째 공공분양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SH공사는 4단지 분양주택 642세대에 대해 이날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다. 9월 초에 특별·일반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구획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고덕동은 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역으로, 강일동과 상일동은 주거지역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분양하는 4단지는 강일동 지역에 속해 있다.

고덕강일지구 4단지는 SH공사가 고덕강일지구에서 공급하는 최초 분양단



고덕강일 4단지 조감도. /SH공사

지이다. 전용면적 49㎡, 59㎡로 구성된 분양주택 642세대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97세대 등 총 1239세대다.

세대별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4억6761만3000원이다. 최저 4억4004만원부터 최고 4억8775만원이다. 전용면적 49㎡는 평균 3억8810만원이다. 최저 3억6574만원부터 최고 4억507만원이다.

/김현정 기자

20년 후 서울을 만든다... ‘2040서울플랜’

20년 장기 목표 법정계획 수립
4단계 거쳐 내년 말 최종확정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서울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될 ‘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다.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서울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이번 ‘2040 서울플랜’은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세운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것이다.

시는 ‘2040 서울플랜’에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활권이 서울인 시민으로 참여 범위를 넓힌다.

참여 방식도 다양해진다. 서울시 홈페이지, 민주시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인다.

시는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2040 서울플랜’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다. 1단계로 서울생활시민 100명+α가 참여하는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11월 말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30일까지 시민계획

단 100명을 모집한다.

2단계로 서울시와 시의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작성(3단계)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법정절차를 거쳐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2040 서울플랜’은 상향식 계획문화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사회적 합의 기반하에 미래 서울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실천전략을 세워 2040년 서울의 한 단계 더 나은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무허가 축사 81% 합법 전환

내달 3823곳 중 3102곳 적법화 완료

경기지역 무허가 축사 5곳 중 4곳이 다음 달까지 합법적인 시설로 바뀐다.

경기도는 적법화 대상 경기지역 축사 3823곳 중 81.1%인 3102곳이 다음 달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 전에 적법화를 완료한다고 20일 밝혔다.

축량 등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232곳(6.1%)이다.

나머지 489곳은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폐업을 추진하거나 관광 중인 것

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말 그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해 없애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축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허가받은 면적 외에 축사를 짓거나 규정된 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자 2013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했다.

/수원=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주민세 내달 2일까지 납부하세요”

송파구 15억 최대, 중구 3.4억 최저

올해 서울에서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는 송파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과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주민세(균등분) 총 446만건 728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주민세는 세대주·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

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세대주·외국인은 371만건 222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건 278억원, 법인은 30만건 228억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

봉구가 5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가장 많은 강남구가 42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도봉구는 1억9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납세 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11만8000건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86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천구 1만7164건, 마포구 7217건 순이었다. /김현정 기자



[산업] 현대차 미래차 기술 관련 스타트업에 4400억 투자 08



[라이프] 한우자조금 “한우의 우수성 전세계에 알릴 것” 11



“감동 전하는 호텔리어... 고객의 행복한 순간 맞이하고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호텔현대 울산 나승교 지배인

호텔의 프런트 직원은 ‘호텔의 얼굴이자 간판’이다. 고객이 제일 처음 마주하는 사람이며, 호텔의 첫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6개월간의 대대적인 리뉴얼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재개관한 ‘호텔현대 울산’에 가면 나승교 지배인이 호텔을 대표해 고객을 맞이한다.

확장시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무작정 호텔리어의 길로 들어섰다는 그는 어느덧 14년차 베테랑 호텔리어가 됐다. 여전히 매일같이 고객들과의 만남이 설렌다는 그를 인터뷰했다.

—호텔리어가 된 계기와 어떤 직무를 경험했는지 궁금하다.

“호텔근무는 올해 14년차로 이곳 호텔현대 울산에서만 꼭 근무해왔다. 컨시어지 부서에서 6년 근무 후 현재까지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직까지 F&B업장(식음) 근무경험이 없어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다. 대학교(호텔관광학과) 때 실습차 호텔현대 울산에서 일을 하면서 이 직업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됐고, 소중한 동료들을 만나 지금까지 호텔에 대한 애사심과 호텔리어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어떤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나.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근무형태라고 생각한다. 단 순반복적인 근무형태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직업이라서 매력적이다. 때에 따라서는 유명한 영화배우, 가수 못지 않게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이다.”

—로테이션 근무가 힘들지는 않나. 근무 시간대별로 업무도 다를 텐데.

“프런트의 근무형태는 기본적으로 3교대이며(오전, 오후, 야간) 시프트별 업무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면, 오전에는 주로 전일 투숙한 고객들의 체크인 아웃을 돕고, 오후에는 당일 투숙 고객들의 체크인 업무, 그리고 야간에는 당일 처리한 모든 프런트 업무의 마감작업 및 검수, 기타 서류 작업 등을 한다. 사실 일을 하다보면, 프런트 업무는 시간대별로 구분을 짓기보다 365일 계속 이어지는 릴레이같은 업무라고 느껴진다. 릴레이도 ‘바통 터치’가 있듯 직원들도 다음 시프트 근무자에게 바통 터치를 해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물론 그만큼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새벽(야간)에 근무할 때의 장·단점이 라면.

“생체 리듬이 깨지니까 솔직히 체력적으로 힘든 점이 있다. 하지만, 마감작업과 검수 등 서류작업이 마무리되면 주간근무에 비해 여유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점은 장점이다. 덕분에 밤 늦게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 하시는 고객에게 안부인사를 한마디 더 건넨다거나, 호텔바(bar)를 이용하시는 단골고객과 농담을 주고받는 등 호텔 손님 한 분 한 분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고객의 안부와 기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서비스로 큰 감동을 드릴 수 있다. 바로 이점이 야간근무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호텔현대 울산 나승교 프런트 지배인.



호텔현대 울산 전경.



호텔현대 울산 나승교 지배인이 프런트 업무를 보고 있다.

정형화 되지 않은 근무형태 매력 상황 따라 최상의 결과 만들 수 있어

3교대 근무·고객 응대 힘들지만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즐거워 즐거운 날 찾는 호텔로 기억됐으면



“한번도 오지않은 고객은 있어도 한번만 온 고객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고객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들이 “다음에 또 방문할게요”라고 말씀해주시길 때, 그리고 매년 특별한 날이면 저희 호텔을 방문해 반가워해주실 때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

—일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나.

“고객이 ‘호텔현대 울산’을 떠올렸을 때 과하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호텔이 있으면 좋겠다. 친구, 연인, 동료들과 가볍게 맥주 한 잔하며 이야기 할 수 있는 곳, 매 해 소중한 기념일을 추억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 방학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온 가족이 여름휴가를 오는 곳. 그런 곳이 저희 호텔현대 울산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늘 제자리에서 묵묵히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 호텔리어가 되겠다.”

—고객 응대가 쉬운 일은 아니다. ‘감정노동자’라는 말도 있지 않나. 고충이 있다면?

“입사 초였던 2000년대 초반에는 당황스럽고 힘든 일도 많았다. 반말은 기본이고 욕설과 막무가내식 서비스를 요

구하는 고객도 있었다. 그럼에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응대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진심어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리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요즘은 사회적으로 ‘감정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과거처럼 직원에서 함부로 하는 고객도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호텔리어라는 게 속상한 일을 겪을 때도 생기고, 그때마다 마음에 상처도 생기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 공존하는 직업인 것 같다.”

—고객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가.

“고객이 ‘호텔현대 울산’을 떠올렸을 때 과하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호텔이 있으면 좋겠다. 친구, 연인, 동료들과 가볍게 맥주 한 잔하며 이야기 할 수 있는 곳, 매 해 소중한 기념일을 추억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 방학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온 가족이 여름휴가를 오는 곳. 그런 곳이 저희 호텔현대 울산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늘 제자리에서 묵묵히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 호텔리어가 되겠다.”